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 제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5호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논란된 '해제비' 세금 부과 안한다

기재부, 11월 28일 종교인 과세 보완방안 발표

종교특성 일부 반영해
종무회의·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비과세 결정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도 허용
조계종, 일괄 납부 검토
"소임자 한해 과세 판단"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을 위해 받은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11월 28일 △과세대상 범위 조정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를 뜻한다. 불교는 종무회의서 의결한 것과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안거해제비·기도비 등)가 포함된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단에서 임명하는 교역직 종무원과 사찰주지, 각 사찰서 보시를 받는 7직 등 일부 소임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조계종은 보시·법사비·수행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해왔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결정은 이 같은 종교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원천징수세액에 따르면 연간지급액 2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000원, 2인가구 0원, 4인가구 0원이다. 4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8만3830원, 2인가구 6만1130원, 4인가구 1220원이며, 5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6만3230원, 2인가구 14만730원, 4인가구 5만730원으로 책정됐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연간지급액	원천징수세액(원)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2천만원	1,000	0	0
4천만원	83,830	61,130	1,220
5천만원	163,230	140,730	50,730

이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종교단체에 한해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현재 조계종은 소임자들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교탄압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기타 보완방안으로는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납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종교인 전자납부 시스템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은 11월 28일 브리핑서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종단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평등주의에 최대한 부응하고, 스님들이 혼란 없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단차원서 연구 중"이라며 "종단 시행방안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당국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종교계 간담회·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8일 국빈 방한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문재인 대통령,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사진=노덕현 기자**

文대통령, 조계종 '깜짝' 방문 이유는

韓-스리랑카 수교 40주년 맞아
방한 시리세나 대통령 환대위해
조계사 참배·설정 스님과 환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를 깜짝 방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종교계 방문이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조계종을 예방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8일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환대를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조계사는 스리랑카와 인연이 깊은 사찰로서, 돌탑에 1913년 스리랑카 고승 다르마 팔라가 전해준 부처님 진신사리 1과가 봉안돼 있으며, 경내에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직접 기증한 마하보리수 묘목도 자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조계사에 먼저 도착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각 스님과 함께 시리세나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과 시리세나 대통령 등은 인사를 나누며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예를 올린 뒤 밖으로 나와 잠시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설정 스님은 조계종 내에서 법력과 신망이 높은 스님이시다. 지난 1일에 취임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고, 한국불교와 스리랑카불교 간에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뵙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과 스리랑카 외교관계 수립 40년이 됐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교로 연결된 것은 1000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고, 유서 깊은 사찰에 저를 보러 와주신 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설정 스님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 양국의 우의 증진을 비롯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1175호 INDEX

시방세계 A5
뮤지컬 '주어사' 공연 현장



신행·포교 A6
종로노인복지관 10주년 기념식



학술·문화재 A9
新포교 개념 '담마테인먼트'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에 세민 스님 선출

원로회의, 11월 27일 회의서
부의장엔 대원·원경 스님

조계종 제9대 원로의장에 세민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대원 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원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57차 회의를 열고, 투표 후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의했다.

세민 스님은 회의 직후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신임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일본 경도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동국대 선학과 강사, 조계사·경국사·선암사 주지,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이사, 삼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남장사와 1962년 해인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차석부의장 원경 스님은 송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하고, 제10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흥왕사·청룡사·신륵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현재 원로의장 종하 스님과 부의장 암도·세민 스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며, 회의서 선출된 신임 의장단은 11일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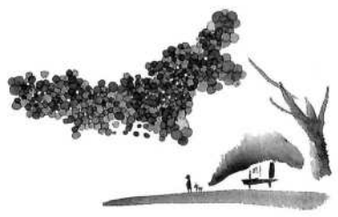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⑲ 후회스러운 선물

본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한 지 17년째다. 산중생활의 호사 중에 하나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별도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다. 봄밤의 별은 오순도순 따뜻하다. 여름밤의 별은 물소리처럼 돌돌돌 소리가 나는 듯하다. 가을밤의 별은 산짐승의 맑은 눈처럼 또록또록하다. 겨울밤의 별은 찬바람, 기러기 울음소리에도 파르르 떠는 듯하다. 이처럼 별의 모습은 계절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어느 계절의 별이든 별은 아름답다.

나는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밤하늘이 왜 아름다운가' 이다. 샛별을 보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나대로 '아!' 하고 무릎을 쳤던 적이 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까닭은 크고 작은, 밝고 희미한 별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반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럴 때의 실존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나는 인사동 골동품 가게를 지나다가 가야토기를 두 점 산 적이 있다. 월급봉투를 털어 샀기 때문에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마음에 들면 한 점만 사야지 왜 두 점을 샀느냐는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내가 두 점을 산 까닭은 법정 스님께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평소에 스님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릇보다는 꾸밈이 없는 질박한 그릇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날을 잡아 설레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가야토기가 깨질세라 비닐을 몇 겹으로 둘둘 말아 박스에 넣어 들고 갔다. 불일암에 도착하여 차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박스를 열고 비닐을 풀었다.

"인사동을 지나다가 가야토기가 마음에 들어 사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이윽고 가야토기가 그 자태를 드러냈을 때도 스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토기는 다 무덤에서 나온다던데?"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한 말씀하셨다. 물건은 제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라며 토기도 무덤에 있어야 제 값을 발휘한다고 충고를 하셨다. 나는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인 줄 알고 당황했다. 그러자 스님이 나를 안심시켰다. "가지고 온 것이니 놓고 가세요."

차를 마시며 스님께서 한 마디 더 덧붙였다. 요즘 도회지 찻집을 가보면 문짝이 장식용으로 벽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요강이 천정에 붙어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며 씁쓰레하셨다.

그러고 보니 물건들이 제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었다. 물건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했다. 내가 가져온 토기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망자의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자책이 들었다. 선물을 하고 후회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안거 기간 신도들도 함께 수행 점검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맞아 수행문화 혁신 나서

11월 29일 신도간담회서 결의
수행일지 보급 · 점검문화 정착
"기복 문화서 수행 실천 문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및 수도권 신도회 임원들을 비롯한 불자대중들이 이날 받은 붓다로살자 수행일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신도들은 동안거 기간 집중수행과 점검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 신도들이 동안거를 맞아 각 가정에서 수행 정진을 점검하는 신행혁신운동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수도권 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남과 호남, 충청권역에 이은 이날 간담회는 중앙신도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의 총괄 행사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금옥 직할교구신도회장, 최성민 제2교구 신도회장 등 200여 신도회 임원 및 대중들이 참석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은 "불교에 대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무사히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고 종단이 안정기에 다시 접어들었다. 이제 신도들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통해 불교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며 "지난해 광화문에서 진행한 금강경 독송회와 같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행 행사를 중앙신도회에서 기획해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수행일지 보급과 점검을 계기로 새로운 신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안거 기간에 맞춘 신도 수행일지 작성 및 점검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한 '붓다로살자' 개정판이 보급됐다. 붓다로살자 행복여행 수행일지에는 특별정진기간을 설정해 100개의 칸에 매일 수행사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중앙신도회 측은 "올해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2일부터 동안거 해제일인 3월 2일까지 수행 사항을 담은 일지를 공모하기로 했다"며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수행사항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손편지로 서원을 써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강연을 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수행일지 보급과 수행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는 위기마다 혁신을 해왔고, 불자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신행혁신은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며 "그 기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100일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을 정해, 일지에 매일 사항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신행 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예경, 지계, 보시, 인욕, 전법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수행 목표를 쓰고, 진행을 점검하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간담회 후 이금옥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이번 신행일지 보급을 시작으로 신도들의 활발한 신행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각 사찰에서 불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묵담대종사 향훈 · 가르침 재조명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 출판 학술대회

"450여종의 친필노트에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사상 등을 시대와 학파별로 사상과 개념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어떤 상황서도 중시해야할 가치인 화합을 강조하며 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묵담 대종사에게 있어 불교의 현대화는 근대 용성에서 시작된 한글화와 광복 후 종단의 역경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불교의 생활화가 이뤄진다고 믿은 선지식이었다."

묵담대종사문도회 주최
학자 16명, 논문 발표도

11월 25일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묵담대종사문도회(대표 수열 스님) 주최로 열린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 출판 봉정식 및 학술대회서 쏟아진 묵담 스님에 대한 찬사들이다.

이 자리에서 묵담 스님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법랍 75년 동안 묵담 대종사가 시대별, 지역별 불교를 고구정녕하게 정리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것에 안타깝다"고 이번 연구에 의의를 표했다.

묵담대종사문도회 대표 수열 스님은 "이 책자는 불경스럽지만 스님 열반 후 15년 만에 문집을 발간했고, 대종사의 사상과 소장품 가치를 16명의 학자들이 발굴해 빛을 보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큰 스님의 법력과 법향이 후손과 불자들에게 수행 지침이 됨과 동시에 진정한 묵담 대종사님의 선양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도 축사를 통해 "탄신 121주년과 입적 36주년을 맞는 묵담 대종사는 한국불교사에 보배 같은 금강송으로 경율론 삼장을 실참한 청정 법신"이라며 "현 한국불교는 선 일변도에 치우쳤지만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묵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후손들이 큰스님의 뒤를 잇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한 춘강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40여 년 전 담양 용화사서 묵담 큰스님에게 감화돼 제자로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번 대작불사에 종단 대덕 스님과 학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데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은 제1부 대종사의 사상편과 제2부 대종사의 소장유품 연구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상편에는 대종사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 9편이,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연구 논문 5편과 불서와 외서 목록 1664책이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현실 절감… 간화선 대중화에 진력"

수불 스님, 입장문 발표… 희망연대 등 계획 철회

지난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순리대로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천명했다.

수불 스님은 11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세월이 흘러 절 집안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더러 책임질 일도 생겼고, 그동안 교계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종단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제반의 상황이 소납이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저간의 상황을 술회했다.

이어 "순리대로 출가사문의 본분사로 회향하겠다. 소납은 평소의 원력대로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불 스님은 불교희망연대 창립 등 이후 예정된 행보들을 전면 취소했다. 실제 수불 스님과 함께 했던 선대위는 수불 스님을 고문으로 한 불교희망연대를 내년 3월 창립키로 계획을 밝혔지만, 수불 스님 측은 불교희망연대 창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번뇌망상 틈 없도록 정진하라"

불기2561년 동안거 결제… 2000여 수좌 화두 들어

불기2561년 정유년 동안거 결제가 12월 2일 전국 조계종 100여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동안거에는 22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화두 참구에 들었다.

동안거 결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운수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모든 반연은 끊고 시비장단은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과 불타는 대용맹심을 내 화두를 챙겨라.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한 번을 챙겨도 뼛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챙겨야만 공부에 진취가 있고 소득이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동안거 결제법어 A7면〉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출가자 급감에 조계종 출가 홍보 '잰걸음'

교육원, 출가자 모집 공고… 내년 1~2월 집중 모집

출가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진 2016년 이후 출가자는 150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위태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홍보까지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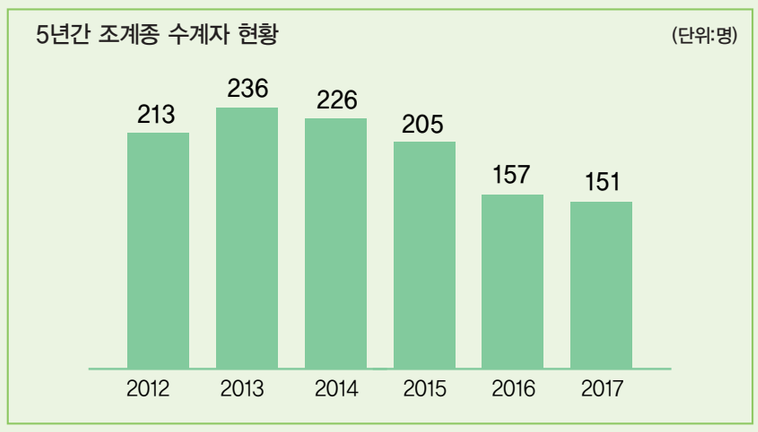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주제로 2018년도 상반기 출가자를 모집한다. 내년 1~2월을 중심으로 출가를 독려하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서 출가 모집하는 까닭은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모집 홍보에 나선 것은 급감하고 있는 출가자 수 때문이다.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출가자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출가 예상자 수는 120~130명 선이다. 현재 내년 3월 사미·사미니 수계를 준비 중인 행자는 약 80명 정도. 평균적 중도퇴사율 27%를 감안하면 실제 수계 받을 인원은 60명 정도에 그친다. 2년 만에 한 해 출가자 150명 선도 무너진 것이다.

종단 사상 첫 출가자 모집 공고
2016년 200명 선 무너진 이후
출가자 감소 속도 점차 빨라져
내년 출가자 120명 급감 예상
종단 상설행자교육원 설립 등
"출가 문화 변화해야" 주장도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비구니 스님 예비군인 여 행자의 급격한 감소와 출가 고령화다. 여 행자의 경우 2014년 86명이 출가했지만, 2015년 75명, 2016년 53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특히 10~20대 여성 출가자는 2015·2016년 2년 동안 26명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출가자들이 늘어나는 출가 고령화는 승단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가자 중 40대 이상 출가자는 78명으로 이는 전체 출가자의 49.6%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출가자 감소가 매우 빠르고, 고령화도 심각하다"면서 "종단이 나서서 출가 안내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출가자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출가자 모집 진행 어떻게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출가자들을 집중 모집한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종단·교구본사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출가 모집 홍보를 시작한다. 또한 포스터 2500부를 제작해 템플스테이 사찰, 군법당, 대불련, 동국대 등에 배포해 출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가 모집 대상은 자유인을 꿈꾸는 만 13~50세 이하이다. 출가자에게는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의료 등이 일체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입원진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 등 혜택이 추가된다.

조계종의 출가 모집 홍보와 더불어 현 출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자들에 대해 교육보다 사찰 인력으로 활용하는 절집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미 일본의 종단과 사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한국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출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인에게 현재 출가 문화는 잘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1~3년 이상 출가해보고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는 기간제 출가나 중·고등학생을 선발·지원해 출가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잘 교육시켜 종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상설행자교육원 설립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출가 문화를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人文 함께하는 문화재기관 발돋움 기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재단 설립 10주년 성과는

2000년 유산발굴단으로 출발
2007년 재단화, 전문기관 초석
사지·성보 조사·발굴 사업 진행
불교문화재 활용 등 향후 과제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재 전문 발굴·연구 기관인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00년 조계종 문화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오대산 월정사·군위 인각사 발굴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불교문화재를 전문 연구·발굴 기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돼 재단법인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창립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대표적 성과는 '전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9)'이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한 1차 기초조사가 이뤄졌다. 사업기간 동안 3400여 사찰에 소장된 16만3000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목록화했다.

2014년부터는 사찰 소장 목판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는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화재·습기 등에 노출된 사찰 목판들의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폐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한 점도 주요한 성과다. 전국 약 5400여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10년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을 통해 1차적인 성과를 냈다. 총람을 통해 전국에 산포된 사지의 규모와 문헌에만 확인되는 사지를 제외한 현장조사 대상 사지 4500곳을 정리했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매년 현장 조사 대상 사지를 조사해 〈한국의 사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발굴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일신하고 있다. 대표 발굴 사례로는 행주산성을 들 수 있다. 국가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에서 대해 고양시 의뢰로 발굴을 진행한 결과 삼국시대 추정 석성(石城)을 발견했다. 이는 토성(土城)으로 알려졌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 결과였다.

최근 서울 도봉서원 하층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영국사 위치와 혜거국사가 동명이인임이 확인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년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사진은 연구원들이 발굴 유적을 정리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인화 이후 꾸준한 성과를 내온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향후 과제는 11월 30일 열린 10주년 기념세미나들의 발제를 통해 정리된다.

특히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의 제언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의 결합 △불교문화재 활용 사업 △인문과 과학의 조화 등을 향후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손 위원은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되면 불교문화재 수리의 보존처리, 관리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불교문화재연구소도 이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추진 단계부터 준공, 운영까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당당한 주역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문화재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가치 확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보존 연구와 조사를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종단에 필요한 미래 문화재 종책 개발과 분단된 우리 역사에 불교문화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소가 짊어지고 갈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은 인생 잘 채워 회향하겠다"

법산 스님, 고희 기념 저서 출판 기념회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고희기념 논집 〈선과 문화〉 〈백장암 선시, 나는 누구인가?〉 〈뜻으로 풀어본 금강경 읽기〉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간 기념회는 법산 스님〈사진〉이 동국대 측에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고, 또 청년 불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출판 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 등 스님들과 신규탁 연세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등 스님과 인연이 있는 학자, 동산반야회 회원 등 불자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도 대거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이날 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과의 인연을 일일이 소개하며 "항상 바보스럽게 팔푼이로 살고 있다. 남은 인생 이푼을 잘 채울 때 까지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출간된 논집과 시집 등 3권의 저서는 통도사 백장암에서 스님이 수좌 스님들과 함께 참구하며 느낀 심상과 〈금강경〉에 대한 평생의 정진 결과를 담은 것이다.

고희 출판기념회에는 스님의 도반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만 유학 시절 함께 동고동락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대만에서 법산 스님의 공양주 보살 역할을 했다"며 말문을 뗐다. 스님은 이어 "스님은 항상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학문 연구를 하는 학자에서 수행을 하는 수좌로, 또 다시 시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계에서 주저 없이 포교하고 있는 법산 스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중을 대표한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은 "이번에 펴낸 책은 〈금강경〉을 도반으로 산 스님의 삶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금강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으고 이를 다시 시로도 표현한 경지가 놀랍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법문하실 품	요일	양력	음력	법 사
입재법문 / 화엄경 현담	월	12/18	11/1	방장대행스님 무비스님
세주묘엄품	화	19	2	혜남스님
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	수	20	3	도일스님
세계성취품	목	21	4	종광스님
화장세계품	금	22 (동지)	5	지안스님
비로자나품	토	23	6	각성스님
여래명호품 / 사성제품	일	24	7	자광스님
광명각품 / 보살문명품	월	25	8	선지스님
정행품/현수품	화	26	9	현봉스님
승수미정상품 / 수미정상게찬품	수	27	10	경성스님
오진)월하스님 다례 십주품	목	28	11	월하스님 추모다례 중선스님
범행품 / 초발심공덕품	금	29	12	지현스님
명법품	토	30	13	보광스님
불승야마천궁품 / 야마천궁게찬품	일	31	14	수진스님
십행품 / 십무진장품	월	1/1	15	반산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화	2	16	연각스님
십회향품 1-5	수	3	17	용학스님
십회향품 6-10	목	4	18 (저장대신)	법선스님
십지품	금	5	19	성우스님
십정품	토	6	20	보선스님
십정십통품 / 십인품	일	7	21	신공스님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	월	8	22	덕민스님
제보살주처품 / 불부사의법품	화	9	23	심산스님
여래십신상해품 / 여래수호공덕품	수	10	24 (대중대신)	상우스님
오진)벽안스님 다례 보현행품	목	11	25	벽안스님 추모다례 현진스님
여래출현품	금	12	26	정우스님
이세간품	토	13	27	도문스님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일	14	28	월파스님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월	15	29	시명스님
입법계품 / 회향법문	화	16	30	방장대행스님

일 주 문



월정사 제51기 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2월 9일까지 제51기 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1기 출가학교는 2018년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성우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스님은 12월 7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서울 비구니 수행관 혜광원 신축 등을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송년의 밤'

범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스님은 12월 1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 볼룸1층에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의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장은 12월 19일 서울 충무로 대림정에서 2017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개최



설법연구원(원장 동출 · 사진)은 12월 11일 오후 5시 탄허강숙 사무실에서 제14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 가르침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교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번 14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는 길상사 아시아밝음 공동체 사미타 스님,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홍성란 씨, 김형률추모사업회 등 활동가 2명과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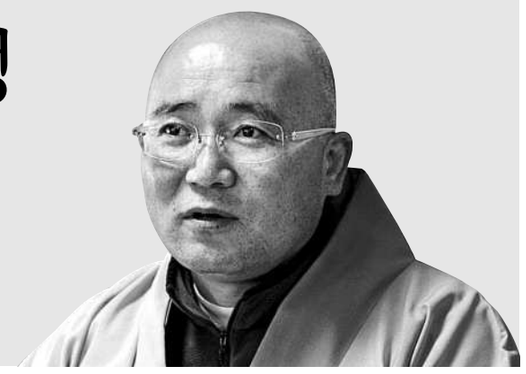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이사장 산수)는 11월 23일 옥천명가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사장 산수 스님, 회장 회암 스님, 수석부회장 정일 스님, 상임부회장 혜상 스님 등 소속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연합회 정관을 심의한 후 제·개정하고 회장단 임명 및 연합회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노덕현 기자**

"제주 불교 인재양성 원동력으로"

Interview

성원 스님(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원장)



보리왓불교대학 11월 25일 개원

제주 불자, 인재 양성 계획

"어린이 포교도 지속 노력할 것"

"제주도 불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입니다. 제주 각 사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함께 앞장서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

신심과 교학으로 무장한 불자 인재 양성소를 발원하며 보리왓불교대학이 제주도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제주시 연동에 약천사 신제주 불교대학 보리왓(학장 성원, 이하 보리왓불교대학)이 11월 25일 보리왓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오영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제주불교도량 개원을 축하했다.

학장 성원 스님은 "신제주 지역에 불교대학을 개원 하는 일은 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요, 우리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리왓 법당에서는 교육과 수행에 매진하고, 사람들에게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 헌신하도록 일깨워 갈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리왓불교대학은 신제주권 내 유일한 불교대학이다. 신제주권은 개발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관공서가 집중화 되어 있는 중요 지역이다. 성원 스님은 먼저 불교대학 운영에 교학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겠단 다짐이다. 신심을 강조해 신행으로 이어 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균형잡힌 인재상을 목표로 둔다. 또 종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주목하고 제주불교와 연결해 종단 흐름에 발 맞춘다는 계획이다.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종단 흐름과 단절되기 쉬워 이를 미리 예방하고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성원 스님은 "종단에서 좋은 프로그램 및 사업을 많이 펼친다"며 "흐름을 연결해 제주불자들이 혜택을 입고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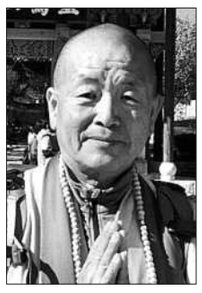
성원 스님은 2008년 제주도 약천사 주지로 활동 당시 어린이 포교 원력으로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다. 이후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법회를 운영해 제주도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7년 포교대상 원력상을 12월 6일 수상한다.

성원 스님은 마지막으로 "포교원이 아니라 보리왓불교대학으로 개원한 것은 교육에 더 힘을 쏟기 위해서다"며 "어느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듣고 각자 수행하는 사찰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내는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불자인재 양성 요람으로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사 및 특강 법사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법사 스님들이 함께 한다. 보리왓불교대학은 현재 입학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개학은 내년 3월이다. 064)746-0108 **하성미 기자**

"금강산 지나 백두산에도 태극기를"

재원 스님, 통일기원 국토 대장정 만행 회향



"만행 기간 동안 가지고 다닌 태극기를 통일전망대에 계신 부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금강산을 넘어 백두산에도 갈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통일을 기원하는 국토대장정 만행 길에 올랐던 통도사 前 주지 재원 스님〈사진〉이 원만 회향했다. 11월 28일 통도사에 돌아온 재원 스님은 예정보다 5일 빠른 11월 25일 강원도 통일전망대에 도착해 부처님께 만행을 마무리하며 '통일'을 간절히 발원했다고 전했다.

재원 스님은 매일 새벽 5시 전에 기상해 〈초발심자경문〉에 있는 발심수행장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마음을 다잡았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차가운 바람에 심한 감기까지 걸려 병원에서는 만행을 만류했지만 멈출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 폐렴이 우려된다며 의사들은 만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약을 먹고 버티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지로 오해 받아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만행은 만 가지 고행과 만 가지 덕행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는 것을 만행이라한다'는 걸 깊이 알았습니다."

만행을 마친 재원 스님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발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붓다 가르침 입각해 집필"

2회 법계문학상 대상 이갑숙 '꺼지기 쉬운 빛'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계 장편문학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계문학상 제2회 대상 수상작으로 이갑숙 씨〈사진〉의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선정됐다. 가작은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11월 27일 "공모를 통해 20여 작품이 응모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갑숙 씨의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작은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꺼지기 쉬운 빛'은 우리의 본래면목인 불성을 찾아가는, 이 시대를 살다간 평범한 한 삶의 서사를 그의 딸인 화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얘기다.

수상 소감으로 이 씨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 공직에 몸담았다. 껍데기를 덮어쓴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허기와 갈증이 오는 시기였다"며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으로 5년간 글쓰기에 매진했다. 해답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 법계문학상이 내게 불교로 계속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가져다줬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 관련 글을 쓰는데 더욱 정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꺼지기 쉬운 빛'의 궁극은 뭇 생명을 연결하고 접속하는 사랑과 자비"라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연등회보존위, 美 전통등 강습회



연등회보존위는 11월 18~20일 포틀랜드박물관과 LA달마사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열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송광사 오불도를 반환해온 포틀랜드 박물관과의 인연을 굳건히 하고, 교포들에게 전통등 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포틀랜드박물관서 진행된 강습회에는 오불도를 반환한 로버트 마티엘리(92) 부부와 중고등학생 등 100여 대중이 참가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의날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0일 서울 호국원광사에서 제49주년 군승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승의날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300여 군포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의 군승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도 연수교육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보광정사 연수원에서 종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종도교육에는 3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취운 스님은 "연수교육을 통해 부처님의 자각각타 원만행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실현을 위해 종단이 지향하고 있는 가정불교, 생활불교, 실천 불교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교육에서는 총무원장 취운 스님의 종헌강해를 시작으로 경전연구 및 토의, 야단법석, 특강, 경전토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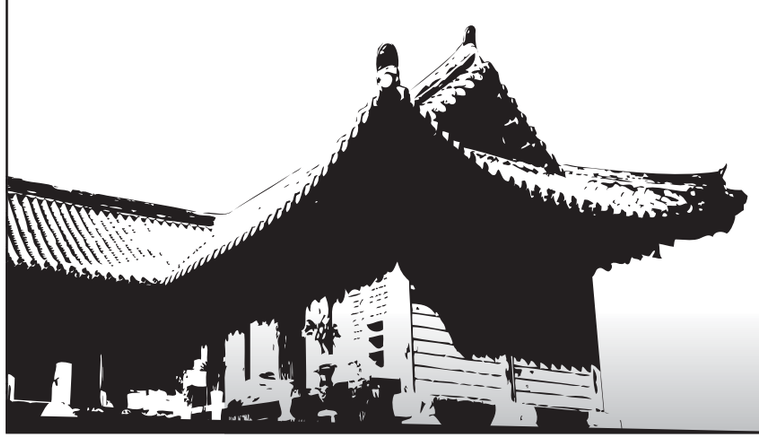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아리담문화원이 11월 28일 공연한 '뮤지컬 주어사'의 한 장면. 스님들이 관군으로부터 실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뮤지컬 주어사는 실학자들과 스님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종교 화합의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뮤지컬이 끝나고 4대 종교인들이 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어사의 종교화합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구제중생' 으로 넘어선 종교간 장벽

아리담문화원 11월 28일 뮤지컬 주어사 공연

차별 없는 세상 발원하며
조선시대 실학자 도왔다가
박해받은 주어사 스님들
뮤지컬로 아픈 역사 조명

4대종교 토크쇼도 열려
주어사 '종교화합' 되새겨
"부처님 · 하나님도 아닌
민중 위한 종교역할 느껴"

푸른빛이 무대를 감싸고 핀 조명이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를 밝힌다. 나이 지긋한 선비는 홀로 주어사를 찾는다. 바로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다. 주어사는 그가 젊은 시절 뜻을 함께한 실학자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는 그리움을 담아 시 한 편 써내려간다. 주어사의 추억을 떠올리는 정약용의 눈앞에 과거가 현실처럼 펼쳐지면서 뮤지컬은 역사의 현장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아리담문화원 뮤지컬 '주어사, 생명이 중헌디' 는 시종일관 관객을 감동으로 이끌었다.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은 1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뮤지컬 '주어사, 생명이 중헌디' 를 공연했다. 이 뮤지컬은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다종교가 공존하는 화합과 포용의 길을 제시코자 아리담문화원과 제스트컴퍼니가 기획했다.

주어사는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앵자봉 중턱에 자리한 폐사지로 조선시대 박해를 피해 숨어든 실학자들을 스님들이 보호했다가 함께 해를 당한 아픔이 서린 곳이다. 역사적으로 1779년 성호학파의 실학자인 권철신 선생이 정약전 등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강학을 했던 장소다. 이는 한역 서학서를 통한 천주교 교리의 검토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천주교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다.

주어사가 강학의 장소를 제공한 것은 유교 · 불교 · 천주교의 화합과 공존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사회의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박애와 평등의 인간 존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뮤지컬 주어사' 의 젊은 실학자들은 새로운 사상을 모색해 많은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원으로 주어사에 모였다. 스님들은 오갈 데 없는 학자들을 받아준다. 그러던 어느 날 실학자들의 스승인 이벽이 서교가 담긴 책을 가져온다. 책을 받아든 실학자들은 제사도, 계급도 없는 전혀 다른 사상에 놀란다. 학자들은 서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이 와중에는 유교사상에 위배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학자도 생긴다.

당시 서학은 접하는 것만으로도 사문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어사에 모인 실학자들은 강학을 통해 새로운 사상체계를 모색하고 백성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힘썼다. 엄연한 역적행위지만 주어사 스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갈 곳 없는 이들을 내치지 않았다. 결국 주어사는 발각되고 실학자들과 스님들은 관군에 의해 처형된다. 뮤지컬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실학자들과 스님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종교 화합의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이처럼 주어사는 박해라는 아픔과 동시에 종교화합의 의미를 갖는 장소였다. '뮤지컬 주어사' 는 당시 두 종교가 하나 된 감동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생생하고 가슴 뭉클하게 관객에게 전달했다. 다양한 종교계서 참석한 관객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스님의 자비와 포용에 놀라기도 하고 박해받는 장면에 한숨짓기도 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은 "주어사는 현대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려던 신진학자의 마음을 사찰에서 포용해 문을 열어줬다. 그 역사를 통해 현대 우리사회가 나아갈 화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뮤지컬 공연에 이어 4개 종교가 어우러진 토크쇼도 진행됐다. 토크쇼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코리안아쉬람 대표 이명권 목사, 김영택 한국예수회 신부, 권도갑 원불교 교무,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이 참여해 종교간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마가 스님은 "주어사 스님들이나 실학자들이 모시는 신은 하나님도, 부처님도 아닌 '민중' 이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며 "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다시 맑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택 신부는 뮤지컬에 대해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하며 "예수님과 부처님이 보시면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다. 뮤지컬을 보니 요한복음 15장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신부의 말을 들은 이명권 목사는 "예수님은 생전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 이라고 했다. 이때 '나' 라는 개념을 진리로 해석하면 뮤지컬과 연결된다"며 "당시 인물들은 진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그때 진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뮤지컬 속에서 살아났다. 그 부활의 현장을 오늘 느꼈다"고 덧붙였다.

권도갑 교무는 "우리는 서로 다른 제복을 입고 있지만, 자주 만나면 형 · 아우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종교 화합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가 스님은 "껍데기로 너와 내가 구분돼 있지만 실상을 보면 모두 같다. 나와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 모두의 본질이 같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김 신부는 "나도 가끔 조용한 것이 좋아 절을 찾곤 한다"고 동의의 뜻을 전했다.

자신을 성보살이라고 밝힌 한 관객은 뮤지컬을 극찬하며 "불교인으로서 주어사의 아픈 역사에 대해 바로 알 수 있게 돼 감사한 시간이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점들을 느끼게 해준 뮤지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크쇼에 대해서는 "종교인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관객 등명 스님은 "뮤지컬을 보며 종교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주어사가 상징성을 갖는 좋은 성지임도 이번에 알게 됐다. 배우들도 종교화합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하는 듯 보여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지역 소통의 종로 복지관 10주년 맞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실버 복지·일자리 창출 힘써온 10년
신설공간 활용해 지역주민 소통↑


실버 복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관내 마루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실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종로구 노인복지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해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8일 관내 4층 종로마루홀에서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송년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0년간 인연을 이어온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및 회원 20여 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과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람하며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사 산림원장 남전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2007년 개관부터 관장 소임을 맡아온 정관 스님은 "개관 당시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신노인문화 중심 1번지'로 노인이 주체적이고 생산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1만여 명에 육박한 회원을 유치했다. 그 역사를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1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하며 힘든 일보다는 감동을 느낀 사례가 더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무위에 있던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복지관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평생을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 복지관의 감성문화대학 미디어학과 이수를 통해 미디어 촬영·편집 등을 배운 후 서울노인영화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어르신, 매일 아침 플러스카페로 출퇴근하며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어르신,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 무대 위에서 연극인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은 어르신 등 한계가 없는 노인들의 역량 발현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2월에 개관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문화 중심 1번지'라는 모토로 힘써왔으며 올해 회원 1만을 달성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그동안 실버 바리스타, 장금이 등을 배출하며 어르신 재교육을 통한 실버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다. 현재 실버 바리스타를 위한 플러스카페는 종로구청, 마로니에 공원에 이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3호점까지 확대됐다. 올해 8월 증축이 완공되면서 장체험관, 장카페, 옥상장독대 장마당 등이 확충돼 어르신들이 만든 장도 직접 판매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재교육, 일자리 창출에 큰 일을 해주고 있다.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나 목욕탕, 장 카페 같은 복지관만의 특화시설이 종로를 빛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별★별 한옥도서관' 지역주민 도서대여, 강당 및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 투표소 지정(무악센터) 등을 통해 열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설된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개방 강좌, 지역연극인 공연장 대관 및 콜라보 공연, 지역주민 대상 장醬체험 프로그램 등이 예정돼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개방 사업운영으로 복지영역을 확대해 열린 복지관으로서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박진형 기자

고령화 시대, 서울형MC로 '실버산업' 선점하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⑧ '100세동안 사당점' 이호숙 대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노령 인구 비율이 7%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도 급격히 연장되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노인 인구 급증에 발맞춰 노년층을 수요자로 하는 실버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소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 가운데 이호숙 '100세동안 사당점' 대표〈사진〉가 발빠르게 실버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서울형MC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제약회사를 다니던 남편의 일을 도우며 노인 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관심을 갖게 돼 서울형MC를 통해 경영개선 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업주부였지만 노인 복지사업이 커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2008년 처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서울형MC를 알게 돼 남편의 권유로 신청하게 됐다.

대출받은 금액은 성인용 기저귀와 노인 복지 용구 등 물품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 제품이 다양화되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객들은 만족했다. 현재 이 대표는 연 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서울형MC를 남편에게도 추천했다. 제약회사를 다니던 남편 이준오 씨는 함께 실버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 서울형MC에서 창업자금 7,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작구에 노인의료용품점 '성풍헬스케어'를 창업했다.

"서울형MC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추천할 수 있었어요. 서울형MC는 이율도 저렴하고, 우리 같은 개인 자영업자에게 맞게끔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인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불자로서 대출단체가 조계종이라는데 신뢰가 더 가기도 했어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힘든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데 한 번에 목돈 갚기 힘들어서 다른 대출은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분할상환이라 큰 부담이 없는 서울형MC를 추천하고 싶어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조계사 10만 8000염주, 삼존불에 안장한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성역화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신심 결집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2월 20일 삼존불 중 아미타불 복장에 안장될 10만 8000염주 성만·복장식을 개최한다. 이번 복장식은 삼존불 중 석가모니불과 약사여래불 복장에 이은 마무리 불사로 진행된다. 조계사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성취를 위해 2015년부터 복장 불사를 진행해왔다.

조계사는 이번 복장불사 회향을 기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정진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신도회, 수행본부 등 전체 대중이 참여하는 수행한마당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측은 "조계사는 한국불교 신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대웅전 삼존불"이라며 "많은 이들이 참배하는 삼존불 복장에 직접 기도하며 한알한알 꿴 염주를 복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승가원, 성북구에 장애아동 보금자리 '첫 삽'

'승가원 희망행복마을' 건립 착공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 이하 승가원)은 11월 22일 성북구 안암동5가 승가원희망행복마을 건립부지에서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장애아동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건립에 첫 삽을 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행, 이하 승가원)은 11월 22일 성북구 안암동5가 승가원희망행복마을 건립부지에서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을 비롯, 승가원 이사회, 각 산하기관장, 건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승가원은 장애아동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목표로 2009년부터 '승가원 희망행복마을 건립계획'을 수립, 진행해왔다.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은 4,560㎡ 규모로 생활실, 세탁실, 식당 등 생활공간과 음악활동실, 수치료실, 미술치료실과 같은 치료 공간 등이 마련된다. 여기에 영화관, 카페 등의 시설도 착공 예정이어서 장애아동의 자립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승가원 이사장 원행 스님은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의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응원해준 후원가족의 꾸준한 염원과 나눔에 감사하다. 근무가족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희망행복마을'은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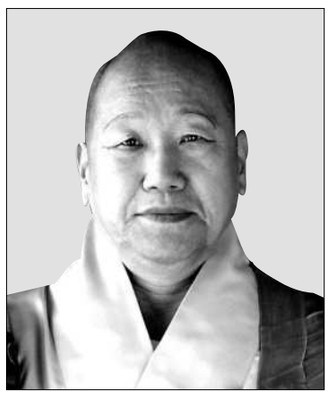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대신심 · 대용맹심으로 간절히 화두를 챙기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전기대용부사의(全機大用不思議)라, 삼세불조도삼천(三世佛祖倒三千)이로다. 유의기시첨의기(有意氣時添意氣)하고 불풍류처야풍류(不風流處也風流)로다.

온전한 기틀과 큰 용(用)은 생각하고 의논하지 못하는지라,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도 삼천 리 밖에 거꾸러짐이로다. 뜻 기운이 있는 때에 뜻 기운을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또한 풍류가 있게 함이로다.

금일은 정유년 동안거(冬安居) 결제일이라.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시간의 신속(迅速)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구름이 허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인생도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구름처럼 가뭇없이 사라짐이라.

사람이 사대육신(四大六身)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내생(來生)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생이 목전(目前)에 곧 닥쳐오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시비장단(是非長短)에 허비해 버린다면 또 다시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모든 시비는 다 놓아 버리고 오직 자기의 본분사(本分事)를 밝히는 이 일을 해야 한 생(生)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이다. 인생백년이 길다고 해도 참선수행의 한나절 한가로움에 미치지 못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 불법(佛法)의 정안(正眼)을 갖춘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올바른 참선지도를 받아 그대로 온전히 실천해야한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다.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짓고, 챙기고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게 된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된다. 참학인(參學人)들이 10년, 20년 동안을 참구(參究)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모두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함이로다.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챙겨야만 공부에 진취(進取)가 있고 소득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된다.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一念三昧)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될 때,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나게 되고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目前)에 드러나게 되리니, 그러면 모든 땅덩어리가 변해서 황금이 되고. 넓은 바닷물이 변해서 감로(甘露)의 제호(醍醐)가 되리라.

이 금덩어리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감로의 제호는 한 번 들이킴으로 인해서 많은 생에 지어온 업장이 당하(當下)에 소멸되니 만 냥의 황금을 허리에 차고서 목마(木馬)를 거꾸로 타고 해금강을 산책하며 인간과 천상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불조(佛祖)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리라.

〈하략〉

마음의 경계 없애야 참나 찾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어느덧 정유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한철 동안 수행자의 본분사를 해결하고자 용맹정진의 다짐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놈은 무엇인가?

〈화엄경〉에 "누구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데(若人欲識佛境界), 마땅히 그 뜻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할지니라(當淨其意如虛空). 망상(妄想)과 제취(諸趣)를 멀리 여의어 가지고(遠離妄想及諸趣), 마음자리 향한 바에 모두 걸림이 없게 할지니라(令心所向皆無碍)"고 이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휴선사도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迷心修道) 단지 무명만을 도울 뿐이다(但助無明)"라고 하셨고, 청매선사는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心不返照),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看經無益).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不達性空), 좌선에 이익이 없다(坐禪無益)"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상의 근본진리를 알고자 할진데, 걸림 없는 맑은 마음으로 완전히 경계를 없앤다면 마침내 밝은 지혜를 얻어서 참나를 찾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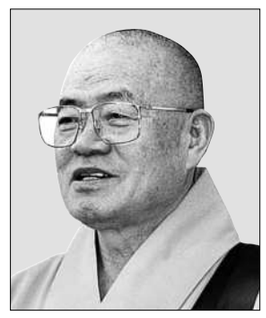
이것이 자유인의 진정한 행복이니 수행자는 이점을 명심하여 수행에 쉼 없이 매진하기 바랍니다.

태고명광편법계(太古明光 遍法界) 일등가파천년암(一燈可破千年暗). 제불보살공찬축(諸佛菩薩共讚祝) 육도함영등피안(六道含靈登彼岸).

태고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니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깨뜨린다
제불보살이 모두 칭찬하고 축하하니
육도의 영혼들이 모두 해탈하여 저 언덕에 오르네

본참 공안상 간절히 참구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불매일물당당로(不昧一物堂堂露)하여 진개무여육합경(盡盖無餘六合境)이로다. 만고유유부증멸(萬古唯有不曾滅)하야 능제멸진무한류(能濟滅盡無限類)로다.

매하지 않는 한 물건이 당당히 드러나서 남음이 없이 상하사방의 경계를 덮었다 했도다. 만고에 오직 일찍이 멸하지 아니해서 능히 한정 없는 무리를 제도해 다하도다.

일탁주장운(一卓柱杖云) 하되 고인(古人)이 언모탄거해(言毛呑巨海) 하고 개납수미(芥納須彌)라 하니 구안납승(具眼衲僧)은 차도(且道)하라.

환가위실마(還可委悉?)아 양구(良久)에 "일할(一喝)"운 일지매화(一枝梅花)에 지대지춘(知大地春)이요 일적해수(一滴海水)에 족지창해미(足知蒼海味)로다.

욕득해탈도(欲得解脫道)인댄 수구삼종심(須具三種心)이니 일일대분심(一日大憤心)이요. 이일대용맹심(二日大勇猛心)이요 삼일대의심(三日大疑心)이니 일체(一切)를 도막사량(都莫思量)하고 어본참공안상(於本參公案上)에 절절참선(切切參禪)이어다.

고인이 말하기를 털끝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또 일러라! 도리어 알겠는가? 한 가지의 매화꽃에 대지의 봄이 옴을 알고 한 방울의 바닷물에 족히 창해의 물맛을 아는도다. 해탈도를 얻고져 할진댄 모름지기 삼종심을 갖출지니 첫째는 대분심이요, 둘째는 대용맹심이요, 셋째는 대의심이니 일체를 도모지 생각하지 말고 저 본참 공안상에 간절히 참구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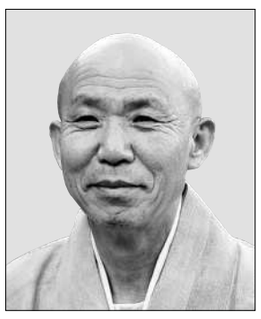
송왈(頌曰) 게송으로 이르시되

실참실오여래견(實參實悟如來見) 이요 자광광타사마족(自 他邪魔族)이로다. 약야불위광자타(若也不爲 自他)하면 기능사마침요란(豈能邪魔侵擾亂)이리요.

실참과 실오는 부처님의 견해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은 사마의 권속이로다. 만약 스스로와 남을 속이지 아니하면 어찌 능히 사마가 침노하여 요란하리요. 〈하략〉

나귀는 우물을, 우물은 나귀를 보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조산본적(曹山本寂)선사께서 덕(德)상좌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法身)은 허공과 같고 사물에 응(應)하여 형상을 나타냄은 마치 물에 비치는 달과 같다. 어떻게 해야 그 응하는 도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열 가운데 여덟만 말했을 뿐이다."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물을 보는 나귀도 무심(無心)하지만 나귀를 보는 우물은 더 무심합니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무엇입니까?

아(我)와 타(他)가 사라지고 시(是)와 비(非)가 사라지고 내(內)와 외(外)가 사라지고 상(上)과 하(下)가 사라져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물이 나귀를 쳐다보는 것처럼 백일무심(百日無心)의 정진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백일무심이 천일무심이 되고 천일무심이 만일무심이 되고 만일무심이 나귀해(驢年)가 올 때까지 항상 여일(如一)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제입니다.

무심의 경지를 얻겠다고 하면서 나귀의 앞뒤만 따라 다니는 것은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從)의 행동일 뿐입니다. 남을 따라할 뿐 자신만의 견처(見處)나 활발발(活潑潑)한 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따라다니는 종의 모습을 오인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결국 죽어서도 나귀의 배에서 태어나는 축생의 과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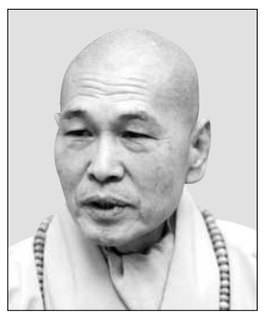
본적선사께서 덕상좌에게 일러준 '노새가 우물을 쳐다보고 우물이 노새를 쳐다본다'는 그 도리 제대로 알려면 그저 화두를 들고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제대중은 자기의 나귀다리(驢脚)를 꽉 묶어두고서 현사(玄沙)스님처럼 산마루를 넘지도 말고 보수(保壽)스님처럼 강을 건너지도 말아야 합니다. 혼침이라는 강물과 도거(掉擧)라는 산을 오로지 화두로서 이겨내며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하여 확철대오(廓徹大悟) 해야 됩니다.

죽영소계 진부동(竹影掃階 塵不動) 이요, 월륜천해 수무흔(月輪穿海 水無痕)이로다.

대그림자 비질해도 섬돌먼지 안 쓸리고, 둥근 달빛 바닷물 꿰뚫어도 물에는 자국 없네.

법고창신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종교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전도선언을 하신 다음 사부대중과 수행을 함께 하시며 사성제 팔정도의 바른 길을 터득하도록 쉽게 일러주셨습니다. 관심(觀心)을 통해 사대오온의 무상함과 무아함을 터득케 하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후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도가와 유가등과 상호교류하면서 선불교와 대승불교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교학의 해오(解悟)와 조사선의 증오(證悟)-철견(徹見), 철오(徹悟)-를 통해 함께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 '이게 무엇인가?', 양손으로 수인을 짓고서 '이 도리를 아는가?', 무단히 자리를 반분(半分)한다든지, 연꽃을 대중들에게 들어보였다든지, 할을 하고 봉을 치며 멱살을 잡고서 '일러라!' 한다든지, 눈썹과 눈을 들어 암시한다든지 하면서 목격전수(目擊傳受)하는 선종시대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와 같은 도리가 지금 이 땅, 이 세계에 인류와 역사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며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가요? 〈중략〉

시대에 앞서가는 것은 차치하고 자신의 몸 하나 청정한 수행자로 우뚝할 수 없는 현실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점점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갖지 못하자 세계 곳곳은 탈종교화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불교가 무종교, 투쟁의 견고한 시대에 존재하지 못할까 늘 염려됩니다. 문명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만큼 인간이 소외되어 비인간화의 길로 한 걸음씩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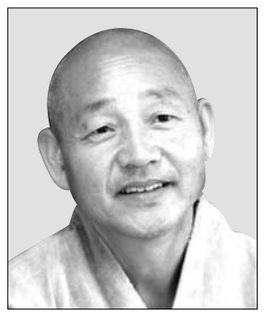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시대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 불교가 법고창신(法古創新)만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꼭 필요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위진인을 추구하는 길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탓입니다.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이 촘촘해질수록 화두를 드는 참선수행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박하고 간단명료하며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혜종고선사께 편지를 보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잘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 스스로 소멸해갑니다. 참사람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세상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가 들리지 않고 망상이 치열하다면 금년 이 동안거를 전후하여 위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찌 살 것인지 파적삼아 자문해보십시오. 힘이 들고 번뇌가 성하더라도 꾸준히 화두에 매진하십시오. 언제나 사람이 할 일은 수행뿐입니다.

圓通으로 장엄하는 삶

영축총림 방장직무대행 성파 스님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이요 문성불시성(聞聲不是聲)이라. 색성불애처(色聲不 處)에 친도법왕성(親到法王城)이로다.

색을 보아도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아니로다. 색과 소리가 장애되지 않는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게 되리.

총림대중이 겨울 석 달을 안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범부의 안목을 성인의 안목으로 바꾸고 반야지(般若智)를 구족하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소임을 정해서 잡다한 일을 줄이고 오직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복과 지혜를 논하지 말고 오직 대의심(大疑心)과 대분심(大憤心)과 대신심(大信心)으로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문득 능소(能所)가 끊어지고 단상(斷常)에 물들지 않는 경지가 드러날 것이며, 아(我)가 없고 인(人)도 없어서 시끄러운 티끌세상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눈앞의 모든 일들이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은 나에 걸리지 않으니 눈썹과 눈이 분명하여 법왕성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음에 유혹되고 끄달리지 않아야 사방이 툭 트이게 됩니다. 무념지(無念智)가 나타나서 이쪽과 저쪽이 한 덩이가 되게 되면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고 떠오름과 잠김이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계에서 한걸음 나아가면 모든 일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종일망망(終日忙忙)에 나사무방(那事無妨)이라. 불구해탈(不求解脫)하고 불악천당(不樂天堂)이로다. 단능일념귀무념(但能一念歸無念)하면 고보비로정상행(高步毘盧頂上行)하리라.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그 어느 일도 방해되지 않네.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즐기지도 않네. 다만 한 생각이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가리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번뇌·감정이 곧 '마왕'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⑧ 자유 향한 태자의 여정 '팔상탱' 3

싯다르타 태자가 큰 깨달음에 들려 하자, 마구니가 나타납니다. 마구니는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마라 빠삐만 또는 마왕 파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왕 파순은 자신의 세 딸을 태자에게 보내어 애욕을 일으켜 수행을 방해합니다. 어여쁜 얼굴과 부드러운 몸매, 검푸른 머릿결과 주흥빛 입술, 가는 허리와 희고 곧은 다리. 어지러운 향기를 풍기며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찌 오욕의 쾌락을 모른 척 할 수 있나요"라고 유혹하는 마녀들에게 태자는 "어찌 한번 뱉었던 음식을 다시 주워 먹겠냐"며 오욕의 진실된 실체와 허망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교태로 유혹하는 세 딸에게 "똥과 오줌이 차있는 가죽 자루"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횃불을 놓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기 손을 태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음욕이 많은 제자에게는 부정관(不淨觀)의 수행법을 통해 제도하셨습니다. 육체의 더러움과 무상함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단박에 음욕의 불길을 꺼버리는 관법입니다. 물론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 역시 이 부정관을 통해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대념처경(大念處經)〉의 '몸에 대한 관찰(身隨觀)'에서는 몸속의 온갖 장기에서 발생하는 피, 고름, 가래, 응고 덩어리들을 관하고 또 자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지켜보면서 육신의 덧없음을 깨치게 합니다. 미국 속담에 "미모는 피부 한 꺼풀에 불과하다(Beauty is Skin Deep)"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 껍질이라는 가죽 부대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대한 환상과 탐욕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게는 믿음과 노력과 지혜가 있다. 어찌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몸과 피는 말라도 지혜와 하나된 마음은 더욱 편안할 것이다.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너의 첫째 마군은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이며, 셋째는 굶주림이며, 넷째는 집착이다. 다섯째는 권태와 수면이고, 여섯째는 공포이고, 일곱째는 의심이며, 여덟째는 겉치레와 고집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너의 마군이다. 나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굴욕적으로 사느니 싸우다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숫타니파타〉 中

인간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본성과 대면하였을 때, 태자는 위와 같이 '믿음·노력·지혜'라는 정진(精進)의 요소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마군의 실체를 낱낱이 관찰합니다. 이러한 마군들은 사실상 태자가 수행하는 동안 줄곧 따라다닌 것으로 전합니다. "우리들은 너를 7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있는 정각자에게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마왕과 그의 권속들은 태자가 깨달음을 향해 용맹정진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내면적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 팔상변상도〉의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변상판화.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마왕의 조복을 받아 부처님으로 탈바꿈하는 극적인 장면이 묘사된다.

욕망의 화살, 스치기만 해도

팔상탱의 '수하항마상'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시키다'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이 화폭에는 태자가 바야흐로 부처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극적인 장면이 묘사됩니다. '수하항마상'을 기점으로, 주인공은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나 아닌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전의 화폭들에는 태자 또는 수행자의 일반 속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수하항마상 이후 화폭에는 부처님의 용모로 탈바꿈합니다. 수하항마상에서는 태자가 깨달음과 계합하였기에 몸에서 깨달음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빛은 둥근 광배, 즉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으로 묘사됩니다. 부처님으로서의 변신된 용모를 보자면, 머리 꼭대기에 육계가 불쑥 올라오고 계주(계珠)가 있고 또 미간에 백호를 갖추었습니다.

계주나 백호는 모두 둥근 구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의주'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상입니다. 계주와 백호는 백회 차크라와 미간 차크라가 열려 우주의 정기(精氣)가 발산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몸 전체가 열려 신성한 근원적 에너지가 그대로 방출되는 현상은 광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도상적 표현들은 모두 원형(圓形)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상(圓相) 또는 여의주는 불화 및 불교미술을 보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도상입니다.

> **깨달음의 순간 나타난 마왕 파순**
> **파순의 세 딸, 부처를 유혹하지만**
> **"똥·오줌 찬 가죽자루"라며 물리쳐**
> **악마는 수행할 때 일어나는 작용**
> **정진 통해서만 경계 넘을 수 있어**

악마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도대체 악마란 무엇입니까?" 〈상윳따니까야〉에는 제자 라다비구가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부처님은 "악마란,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감각이고, 우리의 감정·의지·판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악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마다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어느덧 홀연히 일어나 뱀이 몸을 감듯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오온(五蘊)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악마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마의 작용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관(正觀)이다. 즉, 올바른 관찰이다!" 악마의 작용, 그 기·승·전·결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휘말릴 때, "내게는 믿음, 노력, 지혜가 있다"라고 정진의 요소들을 스스로 일깨웠습니다.

순식간의 휘어 감는 작용에 속지 않고, 그것을 '보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 이것을 빨리어로 '삿띠(sati)'라고 하고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간화선에서는 무엇이 오든 "이뭣꼬"라고 화두를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지혜의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오온'이 되지 않고, '오온을 대상시하여'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온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일깨워 그것에 적적성성하게 머무르는 것, 이것이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초기 경전류에는 악마 또는 마왕을 존재 본능적 욕망으로 까마(애욕), 아라띠(혐오), 꿉삐빠사(기갈), 땅하(갈애), 티나밋다(혼침수면), 비루(공포), 위찌낏차(의혹), 막카탐바(위선과 오만)의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인 '근본무명(根本無明)'에서 비롯되는 집착의 현상들입니다. 존재한다고 착각하면서 존재는 존재를 위해 맹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나를 존재토록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세세생생 윤회의 바탕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격은 무상(無常)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공(空)하다는 것을 알면 해탈이고, 본질적으로 유(有)라고 착각하면 고(苦)입니다. 무명(無明)에서 시작된 존재는 무명(無明)이기에 돌아갈 곳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무명은 자신 넘어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아상(我相)으로서의 무명'과 '이것을 유지하려는 집착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였습니다. 결국 악마라는 존재는 '이 몸과 그것을 유지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같이 초기 불전류 속의 마왕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존재 본능적 현상과 욕망'으로 해설됩니다. 반면, 대승 불전류 속의 마왕이 등장하는 대목을 보면, 어마어마한 대 전접이 벌어지는 형국으로 이야기가 비유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서사시(敍事詩)의 방식으로 기술한 최초 경전인 〈붓다차리타(佛所行讚)〉와 이것보다 더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전기인 〈랄리타비스타라(方廣大莊嚴經)〉를 보면, '마왕'과의 싸움이 큰 규모의 전쟁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즉, 신화적 구성을 가지고 전개되는데, 선(善)의 진영과 악(惡)의 진영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이에 대한 영웅적 물리침이 칭송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의 순간을 영웅적 대서사시와 같은 극적인 세팅으로 풀어낸 것은, 아마도 고대 인도 베다시대 문학의 영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붓다차리타〉에서는 마왕을 '오욕의 자재천왕(五欲自在王)'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탈을 방해하는 마왕의 정체가 '오욕(五欲)'임을 알 수 있다. 오욕은 재물욕·성욕·식욕·명예욕·수면욕 등의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주된 욕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욕이 맹목적으로 스스로 존재하기에 '오욕자재'라고 합니다. 반면, 깨달음의 상태는 관(觀)이 자재(自在)한다고 해서 '관자재(觀自在)'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觀自在)' 보살이라는 명칭은 깨어있는 마음, 반야지혜의 마음이 자유 자재로운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오욕'이 '자재'하느냐, '관'이 '자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담마테인먼트' 새 포교 개념을 전하다

Dhammatainment

전법학술상 대상 프렘 출라롱콘대 교수 선정

불교 전법 · 교화의 학술적 담론과 실사구시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불광연구원의 전법학술상 올해 수상자에 태국 도심 포교 사례를 소개한 논문이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제6회 전법학술상 바라밀상(대상)에 프렘 소운사뭇 태국 출라롱콘대 부교수〈사진〉의 '태국의 성공적 포교 사례: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를 선정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외국인 학자가 전법학술상을 수상한 것은 까르마 렉쉬 쏘모 샌디에고주립대 교수(2회 전법상) 이후 두 번째다.

전법상에는 민태영 박사(동국대 박사)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를 통한 교법 이해 모형 연구', 전영숙 박사(연세대 중국연구원)의 '대만 불교계의 대륙불교 부흥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선정됐다.

프렘 교수의 수상 논문인 '태국의 성공적 포교 사례: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는 태국 도심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큰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포교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프렘 교수가 소개하는 붓다다사 인디빤노 아카이브는 붓다다사 스님을 추모하는 일종의 기념관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아카이브 건립 프로젝트는 4년만인 2011년 개원됐다.

아카이브는 △란힌콩(Lan Hin Khong, 법문과 불교를 가르치는 공간) △닛판침롱(Nipphan chim long, 전시와 학회 공간) △빠띳차삼뭇밧(Patit Cha Samup Bat, 선 정원의 휴식공간) △붓다담(Buddhadham, 불교의식의 공간)을 비롯해 붓다다사 스님의 유물과 출판물, 기념품 판매 공간, 여러 회의장과 연구공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는 무료다.

프렘 교수는 아카이브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Dhamma)'와 즐거움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한 '담마테인먼트(Dhammatainment)' 개념에 따라 설계 · 운영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담마테인먼트'는 아카이브 담마포교팀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다양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강점이다.



붓다다사 아카이브 포교 소개
재미있는 불교 '담마테인먼트'
미디어 · 영화 · 음악 적극 이용
폰사진에 고승 법어 추가하는
'인스트라담' 개발… 젊은층 인기
12월 10일 시상식 · 발표회

프렘 교수는 "△담마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담마를 주제로 한 영화보기 △담마를 느낄 수 있는 음악 듣기 등이 끊임없이 열린다"면서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인스트라담(InstraDham)을 제작 · 배포했다. 사용자들은 휴대폰 저장 사진에 붓다다사 등 유명 스님들의 말씀을 추가하고 이를 SNS에 올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불교를 널리 알리는 도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붓다다사 스님이라는 브랜드와 열린 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 구성 인력, 누구에게나 개방된 프로그램들도 성공적 포교의 요인으로 주목했다.

그러면서 프렘 교수는 "이 센터는 일반 도시인들을 담마의 세계로 이끄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센터의 프로그램이 수준 낮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작은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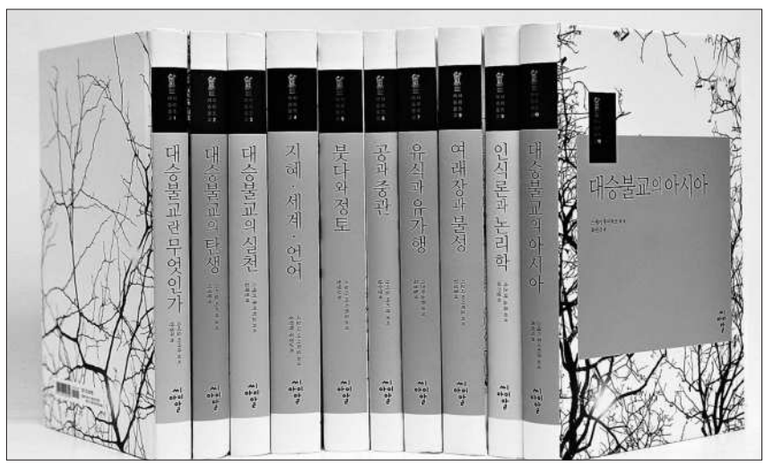
한편, 제6회 전법학술상 시상식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진행하며, 수상논문에 대한 발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바라밀상)과 300만원(전법상)이 수여되며, 불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법학연구〉 제13호에 논문이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 최신 연구 성과 '한눈에'

도서출판 씨아이알 '시리즈 대승불교' 완간

총 10권, 2년여 간 발간해
日 '강좌 대승불교' 후속편
안성두 등 학자 참여 · 번역
대승불교 종합개론서 '눈길'



도서출판 씨아이알이 최근 완간한 〈시리즈 대승불교〉의 전권. 2년여의 번역 끝에 완간됐다.

대승불교 관련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개설서 시리즈가 완간됐다.

도서출판 씨아이알은 최근 총 10권으로 구성된 〈시리즈 대승불교〉 출간 사업을 마무리했다. 2015년 8월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약 2년 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시리즈 대승불교〉는 1980년대 일본에서 간행됐던 〈강좌 대승불교〉의 후속편으로, 기존 〈강좌 대승불교〉를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거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시리즈 대승불교〉 집필에는 한국 불자들에게도 친숙한 스에키 후미히코부터 사이토 아키라, 가츠라 쇼류, 그레고리 쇼펜, 폴 해리슨 등 세계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학자로는 김천학 동국대 교수가 동참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계 불교학의 최신 연구 성과가 응축된 저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리즈 대승불교〉의 번역 사업은 김성태 도서출판 씨아이알 대표의 제안에 안성두 서울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등 1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8월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마지막인 〈대승불교의 아시아〉까지 순차적으로 번역과 발간이 이뤄졌다.

〈시리즈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전개와 특징을 주제별로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제1권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제2권 〈대승불교의 탄생〉, 제3권 〈대승불교의 실천〉은 대승불교의 특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대승불교의 기원 문제와 관련된 최근 서구학계의 여러 연구 성과를 반영한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

제4권 〈지혜 · 세계 · 언어 – 대승불전 I〉과 제5권 〈붓다와 정토 – 대승불전 II〉에서는 대승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여러 주요한 대승경전들의 핵심 사상을 보여준다. 제6권 〈공과 중관〉, 제7권 〈유식과 유가행〉, 제8권 〈여래장과 불성〉, 제9권 〈인식론과 논리학〉에서는 이들 대승경전이 불교사상가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 제10권 〈대승불교의 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와 다른 사상의 교류, 문헌 이외의 방법론의 가능성, 문학과 미술과의 관계 등 대승불교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연구들을 모았다.

이번 학술서 발간에 대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은 "일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국제학계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대승불교의 주요한 성격과 특질, 학계의 주요 관심사와 논쟁점 등에 대한 최신 성과와 연구동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8일 지정 공고



구미 대둔사 대웅전〈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구미 대둔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5호로 지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구미 대둔사는 구미시 옥성면의 복우산 동쪽 중턱에 남북으로 길게 대지를 조성해 자리한 사찰로 신라 눌지왕 30년(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후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해 다시 세웠고, 그 후 선조 39년(1606년)에 사명대사가 중건해 승군을 주둔시켰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 자리이며, 현재 자리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다.

대웅전은 1987년 수리공사에서 상량문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르면 광해군 6년(1614년)부터 순조 4년(1804년)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붕에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장식기와)가 다수 남아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대웅전은 경사지를 따라 조성하면서 앞쪽에 높은 장대석 석축과 계단을 두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이다.

이번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골굴사 석굴과 인도 석굴 상관 관계는

한국미술사연구소, 12월 9일 학술대회

경주 골굴사 석굴과 인도 석굴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9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골굴석굴과 인도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골굴석굴의 구조와 아잔타 19굴' 기조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주제 발표로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의 '콘다네 석굴과 골굴석굴',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칸헤리 석굴과 골굴석굴', 주수완 前 고려대 교수의 '카롤리 석굴과 골굴석굴', 이화수 충북대 교수의 '인도 전기 석굴사원 벽화의 구조와 보존'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신은미 인천이민사박물관장,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강삼혜 춘천박물관 학예사, 한경순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문명대 소장은 "골굴석굴은 자연동굴을 좀 더 다듬고 4, 5층의 전실 건물을 가구하여 승방굴을 만들고 있는 기이한 장관의 석굴"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석굴을 자세히 분석해 골굴석굴의 원형과 변화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 논한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8일 전문 연구자 세미나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견 스님이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 교육아사리 연구동향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상 스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탁상마이크
가격 : 185,000원
자체 소리 조절
주지스님 전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

제1회
혜원 시민포럼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을 표방하는 혜원불교교육원에서 새로운 전법의 목표를 설정하고 포교전략을 수립하고자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소주제문 발표 – 사회자: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제1발제 '전법(轉法)의 교학적 토대' – 조준호 교수(고려대 인문학 연구소)
제2발제 '전법사(轉法師)의 현실적 구현' – 백도수 교수(능인대학원 불교학과)
제3발제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 – 이도흠 교수(한양대 국문학과,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논평과 답변
제1논평과 답변 – 각성스님(혜원불교교육원 원장)
제2논평과 답변 – 목종스님(전법도량 의장)
제3논평과 답변 –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종합토론 – 열린 토론

일시 2017년 12월 10일(일) 오후 1시 ~ 3시 30분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교육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불교교육원
문의 혜원정사 051) 866-7771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금버금한 또래 중에서

어금버금한 또래 중에서 5학년 1반의 52명이나 되는 남녀 학생 중에서 싸움 잘하기로 으뜸인 태식이만 빼고 불알이 마치 어른 같다 해서 별명이 어른 불알인 태식이만 빼고 다른 아이들은 나의 착실한 백성, 음모도 반란도 없는 순하디 순한 백성이었지. 설령 껄적지근한 놈이 먼저 자라는 콩나물 대가리처럼 삐져나오면 콩나물 대가리에다 정조준해 박치기로 한 방, 쎈 놈은 두 방, 질긴 놈은 세 방, 그런데도 땅개라는 별명의 영만이 자식, 어른 불알보다도 무섭고 징허디 징한 땅개 같은 자식이 마치 우리 반에 충치처럼 박혀 있어서 하마터면 급장선거에서도 떨어질 뻔했지, 땅개가 길자라는 년과 눈이 맞아서 기호 2번 대철이 쪽으로 기울뻔 했지. 바라만 보아도 좋은 은경이에게 아무도 모르게 쪽지를 적어 장래 크면 은경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수작을 건 후 길자년 단속을 은근슬쩍 부탁했었지. 그런데도 우체국장 집 아들인 대철이가 워낙 예쁘고 착해 가스나들은 대철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 키 크고 교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바른 길, 옳은 일이면 황소고집으로 밀어붙였다. 총무원에서 심부름을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채찍질을 이어왔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10년쯤의 선배 스님들 에게도 땅개 같은 자식, 어른 불알 같은 존재로 미운털이 되어 살았다.

그러다가 늦게야 철이 든다. 영혼이 있는지, 내생(來生)이 있는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무아(無我)는 무엇인지, 그리고 난해(難解)하기 이를 데 없는 조사어록(祖師語錄)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무치게 철이 드는 것이다.

영어를 할 줄도 쓸 줄도 모르던 나는 인도에서 3년 머물며 천민취급을 당하며 질기게도 간절심 하나로 외진 길을 걷게 된다. 말라리아의 병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향수병도 견디면서 길에서 길을 걸으며 진정한 의미의 길을 찾는 혹독하고 매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경 담장 밑의

진리는 편안이며 자유의 그 자체
覺者, 명예·재색으로 윤회 않는다

공부 잘하는 은경이의 하늘같은 협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바지에 오줌 두어 방울 지리며 승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 빈 말이 아닌 진짜로 은경이와 결혼하여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을 굳히고 있는데도 나쁘디 나쁜 자식 땅개 같은 자식이 은경이에게 사탕 주며 벌쭉벌쭉 웃으며 접근하는 꼴이라니, 헤프게 선심 베풀며 싸가지 없이 수작 거는 꼴이라니.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 생각하니 어느 곳, 어디서나 어른 불알이나 땅개같이 미운 놈이 끼어있기 마련, 충치처럼 눈곱처럼 끼어있기 마련, 미운 며느리 년의 속옷 가랑이에 낀 땟국물처럼 끼어있기 마련.

어린 나이에 절집에 온 나는 어른 불알이나 땅개 같은 놈이 되기로 작심한다. 어금버금한 또래는 멀리하고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두 세 곱 위의 선배들 곁으로 다가가 키 높이를 평준화 하도록 노력했다.

함께 글 쓴다는 구실로 석성우, 김정휴, 조오현 스님 등을 자주 찾았고 불

희미한 불빛 아래서 천지개벽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빛으로 충만한 환희의 세계에는 의혹도 장애도 말끔히 사라진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림의 시작이었다. 찰나지간에 이룬 종교적 아름다운 체험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이었다.

진리는 편안한 것이다. 평화이며 행복이며 자유 그 자체인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높이 있거나 숨어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항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주변에 널려있고 생활 주변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다만, 집착의 병,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간절심 부족이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명예나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언제 물어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할 일 없는 늙은이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며.

기신론의 핵심 내용 여래장심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중생의 여래장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을 나누어 부처의 깨달음(覺)과 중생의 미혹(惑)을 설명한다. 본문에 "일심법에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다. 총괄한다는 것은 이 두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依一心法 有二種門 一者 心眞如門 二者 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一切法 此義云何 以是二門 不相離故)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하고 이 두 문이 각각 서로 일체 법을 총괄 포섭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기신론의 요체를 일심이문으로 파악한 말이다. 일심(一心)이 바로 여래장심이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그의 소(疏)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열면 한량없고 끝없는 뜻이 되어 근본 종지(宗旨)가 되고,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 두 문 안에 수많은 뜻을 포용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의미가 일심과 하나가 되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열고 합함이 자유롭고, 세우고 허무는데 걸림이 없다. 열어도 번잡하지 않고 합해도 비좁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허물어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기신론의 저자 마명의 기묘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신론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일심 이문의 근본대의를 찬탄해 놓은 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도 일심이문에 대해 설해 놓은 말이 있다.

"일심의 법계는 두 문을 갖추어 포함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둘은 심생멸문이다. 비록 이 두 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두 문은 항상 섞이지는 않는다."

진여와 생멸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사물이 나타나 있게 되지만 생멸에 의한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망념을 떠나면 일체 차별의 경계는 없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존재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름을 붙이거나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여 궁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 하며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직 일심일 뿐이므로 이것을 진여라 한다. 그런데 이 진여 곧 불생불멸하는 것이 생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멸과 얼마든지 화합한다. 이 이치를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이란 말로 설명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심의 심체(心體)가 변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이 인연을 따라(隨緣) 응용되는 측면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 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는 진여가 일체 차별된 모습을 떠나 있지만 동시에 인연을 따라 생멸하고,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킨다.

『능가경』에 "적멸(寂滅)한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여래장(如來藏)을 이름한다."는 말을 원효는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심진여문이라 하였고,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름한다'는 말을 심생멸문이라 해석하였다.

또 일심의 체(體)는 본각(本覺)이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기 때문에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숨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다. 또 법장(法藏)의 〈기신론의기〉에서는 원효가 말한 일심을 여래장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는 말은 진여와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진여가 무명의 망연(妄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로 전환되어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이는 체(體)에서 용(用)이 일어난 것이므로 체인 진여와 용인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를 때 여래장심이라 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인 체용불이(體用不二)가 일심(一心)의 본성이다. 마음 전체가 생멸상이 되어도 불생멸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미 아려야식에서 설명 하였듯이 진여의 불생멸과 생멸이 일심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여래장심이므로 이 여래장심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고 또한 열반이며, 범부의 일심에 의해 부처와 보살이 평등해지며 같은 경지가 되어 다 같이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비심으로 보시하리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㉑ 보살이 생각하기를

菩薩思惟。若有可願處使一切眾生身心之苦一時俱集我身。常為受之使眾生得樂不以為苦。菩薩思惟。我菩提道中住一切所有諸苦。我皆能堪忍。所以者何。眾生沒溺生死苦海我不能度脫。菩薩思惟。雖有重結使然菩提道難得。如是但有悲智二事為伴心終不疲厭。菩薩思惟。善逝所行道我今從中去。我今於世間悲心施眾生。當思惟。我如彼無異。菩薩思惟。我今為世間依救當發弘誓。願修大莊嚴智慧為善伴。我今佛慧牙將生。菩薩思惟。我欲滅眾生苦。使一切眾生得樂。欲作一切事。我常為悲心之所教詔。菩薩思惟。生死之苦聞 疲厭。悲者能得堪忍世間苦故。為悲心 何生死門。菩薩思惟。生死苦極可厭惡。欲入涅槃。大悲語言。苦惱眾生未度。云何捨棄而去。菩薩思惟。有為苦具足涅槃出世樂。我今知生死有為苦涅槃無為樂。悲心常樂三種施。

번역 | 보살은 생각하되, "만약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일시에 내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라. 항상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되 괴롭게 여기지 않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보리도(菩提道) 가운데 머물되 일체의 고통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참으리니, 어째서 그런가하면 중생이 생사고해에 빠져도 내가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비록 거듭 묶여 보리도를 얻게 함이 어렵더라도 이와 같이 다만 자비와 지혜 두 가지 일로 짝을 삼으면 마음은 끝내 피곤치 않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선서께서 행하신바 도를 내가 지금 좇아 바로 가리니, 내가 지금 세상에 자비심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리라"하며, 응당 생각하기를, "내가 저와 다름이 없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세상의 의지처가 되고 구제하려 응당 큰 서원을 발하나니, 원컨대 큰 장엄 지혜를 닦아 좋은 도반이 되며 내가 지금 부처님 지혜 싹을 내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의 고통을 멸하고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얻도록 일체를 섬기려 하노니, 내가 항상 자비심으로 할 바를 가르치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사의 괴로움을 들으면 늘 피곤하지만 자비로운 이는 능히 참나니, 세상은 괴로운 까닭에 자비심으로 늘 생사의 문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사의 괴로움이 극히 싫어 열반에 들고 싶지만, 대자비의 말로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고서 어찌 버리고 떠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유위(有爲)의 괴로움에 열반과 출세간의 즐거움이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지금의 생사는 유위의 괴로움이요, 열반은 무위(無爲)의 즐거움임을 아노니 자비심으로 늘 즐겁게 세 가지 보시를 하리라" 합니다.

해설 | 보살이란 말이 보리(깨달음)와 중생의 합성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깨달은 중생'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깨달은 중생'이라는 의미가 더 와 닿는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저와 다름이 없다.'는 제바보살의 고백이 그지없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부처님인지 중생인지는 의미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자신도 중생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선서(善逝)는 부처님의 별칭이다. '잘 간다'는 뜻인데, '깨달음의 길로 잘 가시는 이'라는 의미이다. 제바보살은 보살이란 선서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리라는 원력을 세우는 이며, 자비심으로 보시하리라 다짐하는 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얽매인 중생과의 동질성을 고백하면서 한편, 부처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한 지붕 네 가족… "공동체 삶이 곧 수행"

행복한마을 부산 사부대중공동체 '휴심정'

참 나 혹은 본래 불(佛),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수행공동체의 삶을 선택한 가족들이 있다. 지난 9월 17일 새롭게 문을 연 사부대중 공동체 '휴심정(休心停)'에 사는 네 가족 이야기이다. 11월 28일 부산 수영구 바다 광안리가 보이는 휴심정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된 그들을 만났다.

휴심정에 모인 네 가족은 공동체로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했다. 참선, 절 수행 등 형식적인 수행이 공동체의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특별한 수행 일과를 공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대중으로 모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수행이란 의미다.

지도법사인 은산 스님(행복한 절 주지)은 휴심정 공동체를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먼저 설명했다. 은산 스님은 "스님이 현재 함께 지내진 않아 사부대중이란 형식에 부합하진 않지만 재가자가 중심으로 먼저 모여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소임을 맡은 스님이 오셔서 원래 지향점인 사부대중 공동체로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생활 자체가 수행이다. 공동생활 가운데 삶의 방식이 부딪히며 우리들의 에고(ego)를 발견한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삶이고,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체의 삶이 주는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은산 스님은 "자연과 달리 인간만 분리된 의식으로 살아간다. 참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본래 의식이었던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으로 살고, 그렇게 마음을 쓸 때 본래 나를 알 수 있다. 본래 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부대중 공동체 지향
수행하고 함께 생활해
구성원 청규 만들면서
포살·자자도 준비 중

100일 가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비바람을 맞은 바위처럼 깎이고 다듬어지는 삶이자, 서로 큰 힘이 돼 든든한 지지대가 되는 것이라 했다. 대중의 힘을 발견하며 쉽게 변하는 자신을 만나는 경험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신서영(45)씨는 "저를 포함해 대중 구성원들이 먼저 알고 지냈고 은산 스님께 인문학 과정을 듣다 공동체 삶을 알게 됐다. 현재는 남편들도 모두 수계를 받아 함께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호근(47)씨는 "타인을 만났을 때 밖에서 보는 모습과 가족으로 지내며 알게 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내려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옥선(48)씨는 "휴심정에서 공동 소임을 척척 해내니 효율적이다. 가정주부로 우리 가족끼리만 지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다. 사람이 많다보니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석은미(45)씨는 "사실 대중생활 전에는 108배도 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1080배를 같이 하며 쓰리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함께이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다.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라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대중과 함께 맛볼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


휴심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네 가족이 은산 스님과 차담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휴심정은 부산에 설립된 행복한 마을이다. 행복한 마을은 불교계 사부대중 공동체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곳이다. 행복한 마을 촌장 은산 스님은 조계종 해인사 말사 행복한 절(경남 거창 소재)의 주지로 행복한 마을을 이끌고 있다. 휴심정은 부산에 건립된 행복한 마을로 4가족 공동체(구성원 17명)의 터전이다.

휴심정 가족은 매일 새벽 5시 명상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며, 대중소임제로 생활을 하고 휴심정에서는 채식을 한다. 내부 구성원이 지켜가야 할 청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재가자로서의 정기적인 포살과 자자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화엄의 법석' 열린다

12월 18일부터 제47회 화엄산림대법회

선·교·율의 큰 스승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을 배우는 화엄산림대법회가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8일~1월 16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7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화엄산림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각각 오전과 오후 법문이 이어진다. 오후 1시 30분에는 화엄경 약찬게를 독송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설법전에서 법성게 기도를 봉행한다.

법사로는 전국에서 후학 양성에 앞장서며 대강백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이 초청된다. 12월 18일 입재법문은 방장대행 성파 스님이 법문하며, 오후 법석에서는 무비 스님(前은해사승가대학원장)이 화엄경 현담을 주제로 법석을 펼친다. 이후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도일 스님(前송광사 율원장), 종광 스님(前기림사 주지),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각성 스님(前통도사 강주) 등 대강백 30명이 화엄의 세계로 대중을 안내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영가 동참금 1위당 2만원이며 온산림 동참금 20만원, 반산림 10만원이다. 055)381-1288

하성미 기자



배추 한 포기에 이웃사랑 '듬뿍'

대성사, '자비의 김장 담그기'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가 달서구 내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11월 25일 경내 향림당에서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윤수현 신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정효 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성사 신도들이 대거 동참했다.

대성사는 총본산 단양 구인사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1,200포기를 직접 다듬고 양념과 정성을 더해 김치 수백 통을 만들어 달서구청에 전달했다.

영제 스님은 "정성어린 김치 한 포기가 동절기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와 활력소가 되어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사는 20여 년 동안 연말마다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밑반찬이 될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연제구불교연합회 나눔의 쌀 기탁

부산 연제구 스님들이 지역민을 위한 나눔의 쌀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기원했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1월 28일 연제구청 내에서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쌀은 회장 무관 스님과 수석부회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금룡암 총무 동선 스님은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준 연제구청장은 "현재 연제구는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 다복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스님들의 지원은 큰 버팀목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茶香으로 하나 된 울산불교

BBS울산불교방송, 제9회 울산 차문화한마당 열어

법음으로 전법에 앞장서는 BBS울산불교방송이 한국 다도문화를 선양하며 다향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개최했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은 11월 23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차향 가득한 제9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주최했다.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 고유의 차 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뿐 아니라 부산,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차인들과 불자들이 하나 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찻자리에는 전 세계 다양한 차와 다식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전통 차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부 개막식에서는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차문화협회 소속 최영숙 씨와 월봉사달빛다도회 송점순 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송해경 원광디지털대학 교수가 '초의선사 동다송의 차 정신'을 주제로 강의했다. 아울러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가람예술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BBS울산불교방송은 11월 23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차향 가득한 제9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진용 사장은 "예로부터 차는 몸과 마음의 수양을 쌓는 하나의 문화다. 특히 다전이 있는 울산은 차와 밀접한 도시"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차 문화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BBS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영배 스님,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남현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과 윤시철 시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방송신문 개국 2주년 기념법회

(주)KBB한국불교방송신문(대표이사 대봉)이 11월 26일 개국 2주년 기념 대법회를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방송신문 총재 보광 스님과 부총재 만각 스님, 대표이사 대봉 스님, 부사장 법성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이사 대봉 스님은 "생활불교, 대중포교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깨침의 소리! 세계로'란 사훈으로 개국,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출범한지 2년이 됐다"면서 "소외 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건전한 언론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대학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게임대신 스포츠로 정신건강을”

태고종 전북종무원, 어린이 스포츠 스태킹 대회 후원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종무원은 11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열린 ‘2017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스포츠 스태킹대회’을 후원하고 어린이들에게 떡볶이,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제공했다.〈사진〉 덕진구 스포츠스태킹 협회가 주최하고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전주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한울타리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스마일지역아동센터 등 9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진성 스님은 “어린이들이 스포츠 스태킹 대회를 통해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어린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과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150인분의 떡볶이, 떡 강정,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일 등 간식을 제공하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관광사찰서 기도도량으로 ‘변신’

구례 사성암, 제1차 약사여래불 철야정진



지리산 최고의 관광사찰이 기도도량으로 탈바꿈한다.

연기 · 원효 · 도선 · 진각국사 등 4명의 고승이 수행한 도량으로 알려진 구례 사성암(주지 대진)은 11월 24일 제1차 약사여래불 철야정진 법회를 열고, 관광사찰에서 수행도량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도여정을 시작했다.〈사진〉

철야기도를 주관한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성인들이 수행하셨던 사성암이 몸보다 먼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호남제일의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첫 발을 내 딛는다”고 말했다.

첫 철야기도를 입재한 사성암은 약사재일 전날 오후 9시부터 약사재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해 사성암은 약사여래불 철야기도에 이어 실천행으로 11월 30일 구례군을 찾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정읍검찰지청, 템플스테이 MOU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템플스테이 관련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주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양동훈)은 11월 29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양동훈 지청장, 이수현 검사, 은희경 사무과장 등 검찰청 직원, 신유섭 선운사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선운사와 정읍지청이 체결한 공동업무협약은 선운사의 템플스테이를 매개로 상호 협력하며 정읍지청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가 사회를 향한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젖힌 문화적 상징이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을 통해 외형만큼이나 내실도 알찬 템플스테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양동훈 지청장은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정읍지청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운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사상’ 드높일 새 도량 낙성

정읍불교사암연합회 105연대 호국사 건립



정읍 105연대에 새로 들어선 호국사 앞에서 스님과 불자장병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한동안 법당이 없어 신행활동에 지장을 받아왔던 정읍 105연대 불자장병들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겼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완, 내장사 주지)는 11월 26일 정읍105연대 호국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법회에는 도완 스님을 비롯해 내장사 한주 대우스님. 총무국장 현적 스님, 정토사 주지 원공 스님, 운주암 주지 성락 스님, 두승사 주지 혜담 스님, 성불암 주지 상운 스님, 보림사 주지 석우 스님 등 스님들과 105연대장 김승철 대령, 군수과장 등 부대관계자, 내장사 서래합창단, 불자장병 100여 명이 동참했다.

105연대는 지난해 부대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법당을 마련하지 못해 임시법당서 법회를 이어왔다. 이에 정읍불교사암연합회의 발원으로 약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새 법당을 낙성하게 됐다.

이날 개원한 105연대 호국사는 108㎡(약 35평) 규모로 대웅전과 법사실, 화장실을 갖췄으며 온돌난방시설과 65인치 TV, 음향시설을 구비했다. 공사비는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됐으며, 내장사를 비롯해 운주암, 정토사 등 지역 사암의 출연으로 건립됐다.

도완 스님은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나라의 안녕과 평안, 장병들의 원만한 군 생활을 기원하는 호국사 법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스님들과 김승철 연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개원한 호국사는 장병들의 요람이자 105연대의 호국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철 연대장은 “호국사 낙성을 계기로 장병들의 호국사상 함양은 물론 지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책임지는 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사의 낙성은 우담바라꽃이 핀 듯 매우 경사스런 일”이라며 “혜안으로 세상을 바로보고 참 나를 찾아가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5연대 호국사는 지난 1990년 당시 내장사 주지 태허 스님 등의 원력으로 개원해 불자장병들의 신행활동을 이어왔으나 2016년 부대이전으로 법당자리를 찾지 못해 한동안 임시법당서 법회를 봉행해왔다. 이번 낙성에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은 1억여 원의 공사비와 석가모니불 개금과 점안, 법당 시청각 설비 등을 지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불교계, 이웃에 고추장 나눔

탑사, 쌍봉사, 고림사 관내 550가구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 고림사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진안홍삼고추장 대축제서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관내 550가구에 전달했다.

올 겨울 첫눈이 내린 진안지역에서 사찰들이 저소득층과 홀몸어르신을 위한 홍삼 고추장 나눔 대축제에 동참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 쌍봉사(주지 보경) · 고림사(주지 성목)는 11월 23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진안홍삼고추장 대축제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정신을 실천했다. 세 사찰은 행사에서 관내 550가구에 진안 특산물인 홍삼가루를 활용한 홍삼고추장을 직접 담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불교를 비롯해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진안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들은 종교를 초월한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선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성 스님은 “4대 종단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홍삼고추장 나눔행사에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들과 함께 동참했다”며 “희망을 안겨주는 첫 눈이 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은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며 “불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행사에서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과 탑밴드 단원들은 행사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스님떡볶이’ 이 500인분을 제공하고 격려했다.

송운 스님은 “추운날씨에도 자원봉사행사에 동참한 봉사자들을 위해 떡볶이를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제11회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나누우리 봉사단 신정자 불자, 고림사 강성만 불자, 전근수 쌍봉사 섬김봉사단장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인천분원 월천사 릴레이 자비 연탄나눔

마이산 탑사 인천분원 월천사(주지 보문)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릴레이 연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월천사는 11월 28일 인천시 용현동 지역에서 개최한 자비의 연탄나눔행사서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10가구의 주민들에게 각 연탄 300장씩 총 3,000장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대웅사 법산 스님, 만장사 진감 스님, 약사암 혜철 스님, 이정대 대금장, 김한례 월천사 신도회장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보문 스님은 “자비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협동심으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연탄을 쓰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연탄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름 나눔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례 월천사 신도회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주신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신도들의 보시금을 이웃을 위해 회향할 수 있어 신도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中 순례하며 韓中 관계 회복 기원

금산사(주지 성우)가 한중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일환으로 중국 복건성을 방문했다.

성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사부대중 60여 명은 11월 24~29일 중국 복건성 하문시와 천주시 비운사, 남소림사, 개연사, 남보타사를 방문했다.

특히 비운사는 주지 심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해 사드배치로 경색된 한중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경제 · 문화분야에 대한 대화와 협력이 장이 다시 열려 상호호례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공동법회를 봉행했다.

중국방문은 금산사 108산사 순례단의 해외순례 일환으로 종회의원 화평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은적사 주지 석초 스님, 이근재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탈 종 공 고

- 법 명 : 지현(황정예)
- 승려증번호 : 0186-9879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배는 강물을 건네 주고, 지혜는 생사를 건네 준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늘 들어서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불본행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산소, 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수 맥
산소 수맥, 집 수맥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육신병, 정신병 고통받는 분, 목디스크, 오십견, 견비통, 우울증, 수면장애, 병원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상담을 통해 치유시켜 드립니다
010-3225-5053

2018년 내 운세
신비한 타로점으로
전화 상담드립니다.
타로수강생 모집
한달만 배우면
2018년 운세 상담가능
010-2748-6321 향수해 보살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부산)
010-7269-3689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 (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선방후원 경험 있으신 분)
(전남 곡성)
010-6305-4494

배우자 구함
남 64세, 회사원, 여행 취미
성격 부드럽고 진실한
아들 없는 홀로 되신 여성
인연 바랍니다.
(북한 여성 환영)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는 특수한 기도법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 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개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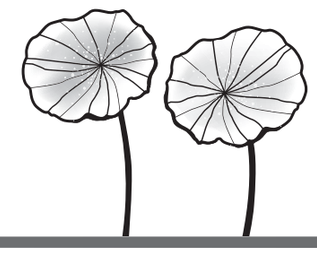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의 깨달음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유마힐경 -



청도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목조 산신각. 요사. 공양간. 토지임야 등 12.000㎡
- 사찰 경관 우수하고 지대 높음. 계곡 접함.
- 양도가액 : 9억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 위치 : 인천
◎ 부지 : 160평 ◎ 대지 : 70평
◎ 무허가,매년사용료있음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5천 ◎ 양도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청도 사찰(급)안내
- 목조법당. 요사. 삼성각 등
- 토지 80.00㎡. 사찰경관 좋음
- 산중최고사찰. 기도도량
- 수행터로 위치 좋음
- 양도가액 : 15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6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 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7년하던곳
-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정도 법당.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3백40십
-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시설합 1350 만원

010-2847-6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1,500평 남짓 법당 목조,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일억 8천 모두 합 2억 5천 5백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아름다운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대가면 대천리219
- 한옥, 평수 215평 사용실평수 350평 정도 건물 2동
- 가액 : 1억 7천 (융자6천 포함)
- 소나무 울창한 산밑

010-3850-7179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의 35호
- 대지 367평 전체 옛날 집 약 100년 흙집
- 지금 사용하고 있던 아주 좋은 명당자리, 대학총장님이 태어난 자리
- 약30평.2018년 전철 개통 예정
- 거리 :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감곡IC 10분
- 가액 : 1억 5천 조정가능

010-6674-135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위치 최고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최고
- 대지: 1140평, 주차장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 기도방 6칸,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5억 8,000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철역앞 역세권
- 전용면적 100명, 최신식 현대 최고인테리어 제반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2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010-5800-93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4천 5백

010-5258-1570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 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포교원 또는 포교휴양지
- 위치 : 부산 기장 바다전망
- 방3 욕실3 샤워부스3, 친견실,종무소, 공양정, 원목락카, 수입원목설비, 법당5존불, 탱화, 주차50대, 엘리베이터 2대
- 3층 중 3층(신축건물) 105평(실평76)
- 가액 : 보 2,000만원, 월 120, 권시설비 4,500 (조절가)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3832-6626
010-2065-3338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종교부지:208평, 대지:63평 전 : 419평, 총 : 690평
- 목조 및 벽돌 구조
- 법당,산신,칠성,독성,요사채 방7개, 거실, 공양간 2개, 화장실 3개, 창고등 다용도실
- 가액 : 2억 3천 500만원

010-4489-334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별장 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현재 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거리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 내, 방 2개, 주방 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5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 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 : 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 (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 : 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中정부, 불교·도교 상업화 금지령

시진핑 정부 11월 24일 발표
부패행위 방지 명목


중국이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 · 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렸다. 자료사진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려 불교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11월 24일(현지시간) 11개 부처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불교와 도교 상업화 문제 관리 진일보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 이라는 통지문을 올렸다.

통지문은 "심각한 상업화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정상적 종교활동의 질서와 불교와 도교의 청렴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해치고 회색거래 등 부패 행위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찰과 사원 등 불교 · 도교 활동 장소를 투자하거나 빌릴 수 없고, 주식제나 합작, 배당제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찰과 사원에 딸린 주거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사찰과 사원 건립에 기부금을 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교나 도교 이름을 빌어 행사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향불을 피우는 등의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비(非)종교단체와 비종교 학교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성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안된다.

특정 업종 협회나 상회 또는 회사가 불교나 도교를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가짜 승려 등을 고용해 종교활동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안된다. 불교나 도교 활동장소를 소수인에게만 개방하는 장소로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지침도 있다.

2015년 말 공식 집계된 중국내 사찰 수는 3만 3000여 개다. 이번 통지문과 유사한 문서가 2012년에 10개 부처에 의해 발의됐지만 종교의 상업적 행위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중국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즈펑 종교전문가는 "불교와 도교는 역사와 전통 때문에 중국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교 상업활동이 자선활동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상업시대 불교와 도교와 상업화 난맥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2013년 산시(山西) 우타이산(五台山)에 있던 불법 사찰이 폐쇄된 사례 등 문제점을 짚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결과적로 지방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절에 스님이 없고 돈 받는 판매원만 있다'는 지적을 듣는 중국 불교 사찰의 현실 탓이다. 각종 상업활동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소림사가 특히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종교 상업화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내부적으로 규율을 느슨하게 한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들의 신앙 수요를 비즈니스로 보고 사찰을 일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외부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객원기자

日, 부처님 가르침 아래 하나 되는 종파와 승속

일본 사가현 쵸겐지 사찰서
여러 종파 스님, 신도 함께
문법회 · 독서모임 등 가져


일본 쵸겐지 사찰서 여러 종파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져 법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쵸겐지 공식홈페이지

일본에 여러 종파의 스님 · 신도들이 함께하는 야간법회가 인기다.

일본 일간지 '츄카이 일보'는 11월 22일 "평일 야간에 여러 종파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법회가 있다"고 사가현 나카하마시 정토진종 쵸겐지(長源寺)사찰의 문법회(聞法ø)를 소개했다. 문법회는 예불의식을 축소하고 법문을 주로 듣는 법회다.

쵸겐지는 수십 가구만 등록돼 있는 소규모 사찰이다. 하지만 이 사찰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설법이 명쾌하고 정열적인 것으로 알려진 우류 타카시 스님을 강사로 4년 전부터 문법회를, 2년 전부터 불교 서적을 읽는 독서모임을 매월 1회씩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법회와 독서모임은 평일 밤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늘 3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츄카이 일보'는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종파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 많은 종파가 혼재하는 일본 불교에서 좋은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법회가 시작된 데는 사찰 신도의 힘이 컸다고 한다. 쵸겐지의 신도인 시미즈 미사시게(67)가 "정토진종에서 매일 독송하는 '정신게(正信偈)'의 뜻을 알고싶다"고 쵸겐지 주지 미야오 스님에게 공부모임을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신도들에게 정신게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만든 법회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법회를 진행하는 우류 스님은 "불법을 배워도 불행과 곤란한 일은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받아들임'이란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라고 범부의 존재양상을 설명했다.

신도 타게다 코타로(69)는 "법회에 참가할 때 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불법이 깊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 종파의 신도지만 함께 법문을 듣는 카와자키 미네오(68)는 "인생에선 일반적인 상식이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 법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참가 의의를 밝혔다.

다른 현에서부터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중인 이시이 호슈(43)스님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심지가 올곧다. 그건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우고 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모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쵸겐지는 이 외에도 여신도만을 위한 모임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매월 세 차례 월례법회를 갖고 설법을 한다. 미야오 스님은 "이것이 절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부처님 법으로 모두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운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교황청 "불교국가와 다리 역할 원해"

프란치스코 교황, 미얀마 방문에서 로힝야족 언급 회피 해명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곤공항에서 미얀마 어린이들의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얀마 방문에서 '로힝야' 언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30일 AP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얀마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젊은 가톨릭 교도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양곤 성모마리아 대성당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과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황이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면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힝야 사태의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인종청소라고 비난한 일에 대해 교황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은 불교국가(미얀마)와 다리를 놓는 것을 원한다"며 "교황은 미얀마 가톨릭교회가 그에게 건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미얀마 가톨릭교회는 방문기간 중 '로힝야'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 것과 태도를 신중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얀마 대중 앞에서 교황의 외교적 스탠스는 과거에 그가 말한 것과, 사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박해'라고 언급하며 인권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커리어우먼에서 행복한 비구니로

부탄 최초 서양 비구니 엠마 슬레이드 '화제'



미국 주간지 '타임'은 11월 28일 사치를 좋아하던 고 연봉 금융인에서 비구니로 변신한 엠마 슬레이드〈사진〉를 전격 인터뷰하고, 현 시대에 중요한 가치와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10억의 자산, 명문대 졸업, 수 많은 사치품, 촉망 받던 전문직.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구니의 삶을 택한 엠마 슬레이드는 오히려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고 웃어보였다. 엠마는 부탄의 최초 서양 비구니다.

고가의 '아르마니' 가방과 구두를 모으는게 유일한 취미였던 엠마다. 그녀는 1997년 인도네시아 여행중 느닷없이 무장 강도를 만났다. 이 사건이 그녀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엠마는 "당시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무상함과 소유의 덧없음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엠마는 히말라야로 여행을 가게 되고, 그길로 부탄 서양 비구니 1호가 됐다.

엠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물질에 집착했던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가 알게됐다"고 삶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타임'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부는 불교 바람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멋진 직장이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다"고 의미를 더했다. 박진형 기자

사찰신도 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 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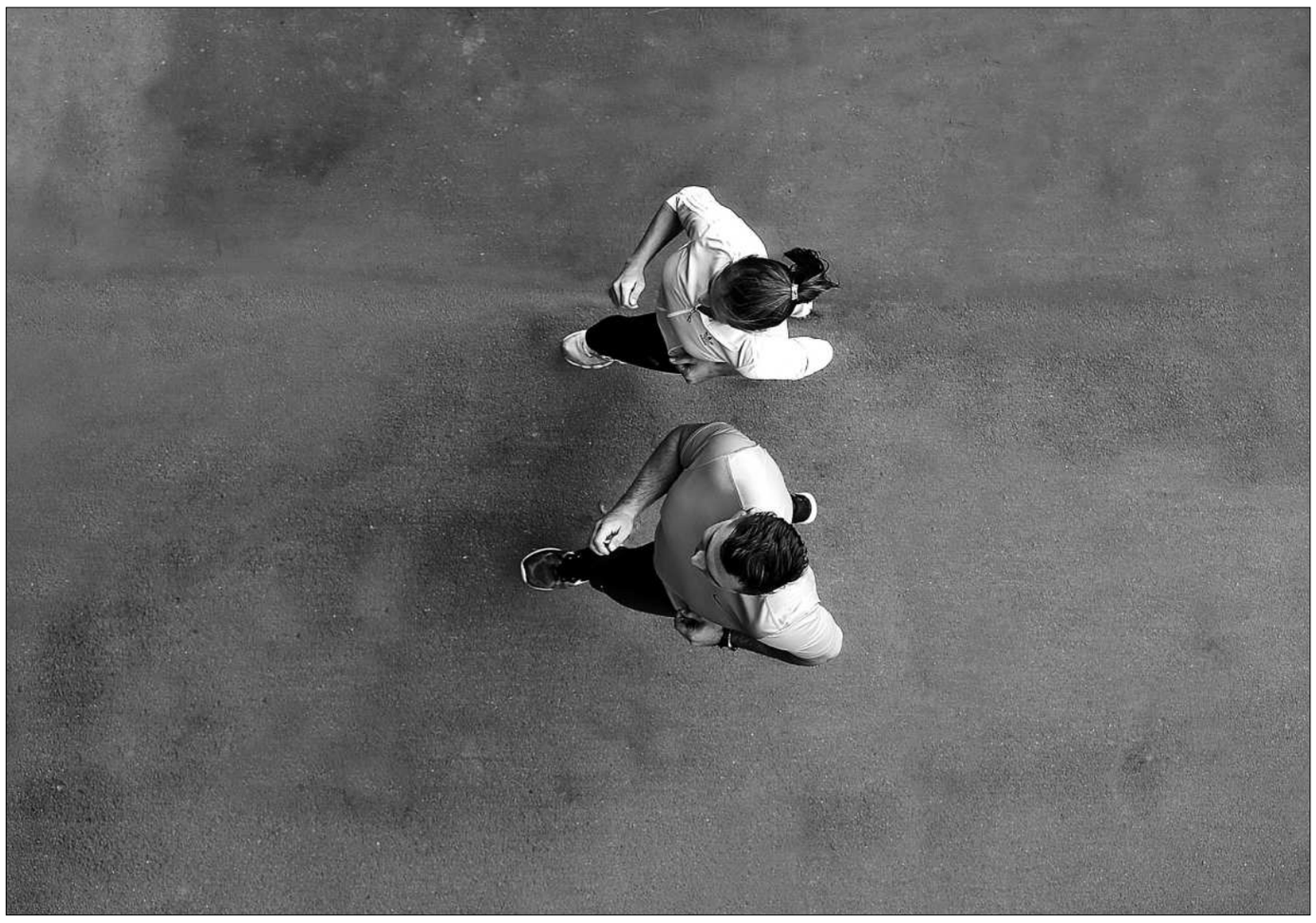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㉔



포기했지만 계속된 무의식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이 말하는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정신이다. 의식의 중심인 나(ego)를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크기의 전체정신 그 자체이다. 전체정신의 중심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원형'이라고 부른다. 자기원형은 우리 정신의 내적인 방향타이며, 최고의 신,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인간들이 신이라 부르는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는 자기원형 그 자체를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원형의 상(image)이다. 그것은 인간의 꿈, 신화, 민담, 종교적 표상으로 나타난다. 자기원형이란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 그 사람의 마음을 통일하여, 숨은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은 의식이 쉴 때에도 끊임없이 활동한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준비하여 제주국제명상센터를 마련하고, 필자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세상에 기여하려고 했다. 하나의 꿈을 이루면 또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처음 명상센터의 터를 물색할 때도 공간 선택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센터 공간을 보았을 때, 그 공간 못지않게 필자의 마음이 끌린 것은 그 터를 둘러싸고 있는 산(제주에서는 오름)이었다.

15년 전 당시 이 산은 그저 작은 분화구가 있는 '오름'에 불과했다. 그러나 명상센터를 꿈꾸는 필자에게는 오름보다 '숲길 명상'을 하기에 최적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명상센터를 짓고 나자 숲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으로 괭이와 삽을 들고 산길을 내기 시작하였다. 나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토끼 길 같은 그런 길을 생각하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풀을 걷어내고, 괭이로 파고 삽으로 길을 내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기진맥진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앉아서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보니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작업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서 혼자서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러나 나(ego)는 포기했지만 내 안의 나(self)는 작업을 계속했다. 인간에게는 존재의 심연에 초자아적 자기(transpersonal self)가 있다. 그곳은 평범한 사람들의 개별성을 초월하고 관습적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있는 세계와 이어져 있다. 그곳은 융(Jung)이 말하는 원시적인 신화적 심상(원형)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현대인의 꿈과 환상 속에 등장한다. 이 원형은 전 인류의 공통된 자각으로써 꿈, 명상이나 요가, 바이오피드백, 유체이탈 등을 통해 의식의 세계와 만난다. 그것은 융이 발견한 한 사람 '안에' 있는 동시에 그 사람 '너머에' 있다.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나'와 연결되어 있다. '초월적인 나'란 자신의 사적인 마음, 몸, 감정, 생각, 느낌들로부터 초연한 자각의 창조적 중심이자 확장된 자각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으면서 자신을 넘어선, '내가 아닌 나'로서 깊은 내면의 자유로움, 가벼움, 해방감, 안정감을 가진 진정한 나로 존재한다.

숲길 만드는 일을 과제로 남긴 채 얼마의 세월이 지났다. 혼자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음을 실감하였으니 아예 그만두었다. 그냥 오름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의 발길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어느 세월에 숲길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현실로 나타났다. 명상센터 건물이 들어서고 반년쯤 지났을까,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뒷산을 울타리로 하고 자리 잡은 명상센터 연구실에서 새해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쿵, 쾅"소리에 놀라 나갔더니 포클레인이 산에서 명상센터 뒷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포클레인 기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둘레길을 만드는데 명상센터 뒷길이 경사가 심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원래 길로 들어서는 중"이라고 했다. '둘레길'이라는 말에 어찌나 기쁘고 놀랍던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야자수 잎으로 만든 매트를 깔아놓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의식의 뒷전으로 밀려난 꿈, 그것은 무의식을 통과해 현실로 나타났다. 은총이

> "
> **무의식 넘어 현실 나타난 가피**
> **단순한 행운 아닌 노력의 결과**
> **받으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아**
> **받을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 "

내린 것이다. 필자의 무의식은 의식이 쉴 때도 쉬지 않았다. 언제나 작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작업공간은 한정된 의식의 범위를 넘어 시·공을 초월하였다.

집착을 놓아 얻은 행운

이러한 결과를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교에서는 이를 '은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꿈의 현실화는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평범하다.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껴지는 점에서는 특별하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평범하다. 포클레인이 내가 할 수 없는 둘레길을 만들어준 일은 내 의식적인 작용과는 다르게 일어났으므로 특별하다. 이러한 것은 잠재적으로는 나의 의식에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의식적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식적 의사결정을 초월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의식세계 바깥에서 생겨나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는 강력한 힘이다. '의식 세계 밖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는' 이 강력한 힘은 만져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동시성' 현상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 알고 있다.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 종교인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단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주시할 뿐이다. 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필자 자신이 바로 어려움 그 자체라는 환상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은 그 어려움을 영속화시키는 일에 불과하다. 아마도 산길을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다면 지금쯤 필자가 건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꼭 이루어야겠다는 에고(나)를 내려놓았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다. 우리가 고통과 동일시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고통이다. 그래서 필자는 숲길을 만드는 어려움과 힘들게 싸우는 대신 그 한계를 알아차리고 초연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단 멈추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심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보니 심신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대상을 심신과 동일시했고, 심신의 문제, 고통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심신을 끈기 있게 바라보는 동안 그것들이 자각의 대상, 초개아적 주시의 대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초월적인 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통찰하고 나니 '나'만을 보던 세상을 '전체'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애쓰던 일에서 벗어나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는 순간 세상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생 클레망이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듯이 나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과 이어져 있던 내 영혼의 심연에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미의 절대적 존재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속박에서 해방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죽음에서 불사로 이끌어주는 신성한 초월적 영혼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자각의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든가, 좋은 카르마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행위에 대해 신이 축복을 내려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과 의식으로부터 나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이에게 봉사하고 환경을 풍요롭게 할 때 나는 사심 없이 세상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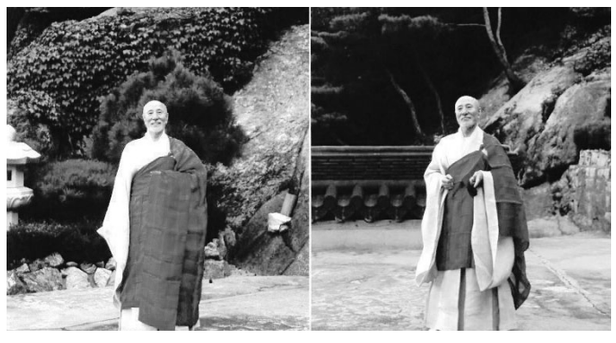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은총을 입어서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숲길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은총은 의식세계 밖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성숙을 돕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은총은 만져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힘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아마도 개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은총은 우리의 의식세계 바깥에 있는 강력한 힘으로써 무의식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 작용할 뿐 아니라, 부모 외에도 사랑을 베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작용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다.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은총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도움을 거부하면 오지 않는다.

은총의 본질은 초능력이다. 스캇 팩(2002)은 이러한 초능력을 '가치 있거나 호감이 가는 일이나 사물을 일부러 애쓰지 않고도 찾아내는 재능'이라고 정의했다. 붓다도 애써 해탈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 은총이 오듯이 해탈이 그에게 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해탈을 얻기 전 그는 그것을 오랜 세월 찾아 헤맸으며, 그것을 위해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해탈이 그에게로 왔다. 필자도 둘레길이 만들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명상센터를 짓고, 둘레길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선물, 은총을 받게 된 것이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는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대행 스님

이 주인공 불기둥이 우주 법계와 연결되고 직결돼 있다!

여래는 다 알고 본다고 했는데…

질문 금강경에 보면 "여래는 다 알고 다 보느니라."라는 글귀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안(五眼)으로써 우리 중생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 선지식들께서도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은 과연 저희 불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눈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옛날에 '야, 저 사람은 꼭 죽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꼭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 거 같습니까? 때로는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될 때 "정성 좀 들여요."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정성 좀 들여요." 했어도 그것을 커버해서 넘길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을 사람, 망할 사람, 잘될 사람…. 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선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무꾸리쟁이나 할 일이지. 무꾸리쟁이도 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다 보고 다 듣고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건 왜냐. 자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 사람 저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가는 사람 이렇게 가게 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야 그것이 보살행이요, 그래야 바로 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이게 칠활궁공법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과거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업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이런 거니까. 안 오지는 않죠. 그러나 올 때 오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에다가 맡겨 놔서 다시금 믹서기로 갈아서 다시 먹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합니다.

'회장이다' 하는 이름이 회장이 아니라 이름 아닌 진실한 행을 하는 데서, 실천을 하는 데서 진실한 보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 아닌 보살이 돼야 하고 회장 아닌 회장이 돼야 하고 이런 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자꾸자꾸 그렇게 양면을 다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일임하고 생각을 돌려서, 이익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놓는다면, 감사하게 또 놓는다면 이게 공부하는 데도, 나를 깨닫는 데도 지름길이 될 것이요, 남을 위해서도 봉사가 될 것이요, 또 보살행으로 실천이 될 것이요, 이게 모두에게 이익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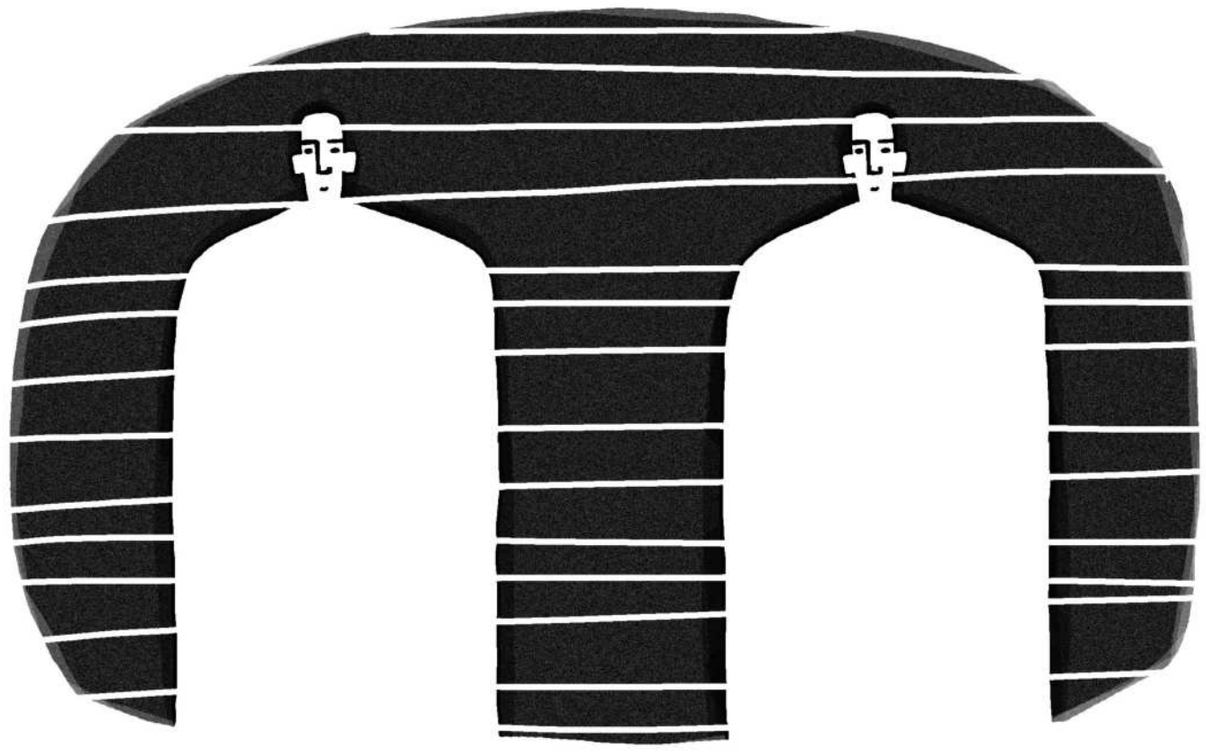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끌고 가고 끌고 오고, 또 내 이 심 안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이끌어 가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심 안에 들어 있는 중생들은 이끌어 가면서, 타의의 중생들은 또 이끌어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일 또는 이익한 일,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이익한 마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나가는 데는 얼음판에서 꺼질까 봐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조심해서 딛고 나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아유, 저거…' 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둡니다. 꺼지게 되면 그때 발을 들어 줍니다. 내려다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마음들이, 한마음이, 그냥 그 음파가 이 법계를, 우주 법계를 두루 하면서 꽃향기를 뿜는 격이다 이겁니다. 그러고는 '아유, 저거 잘 걸어가야 할 텐데, 잘 걸어가야 할 텐데….' 모든 그 한마음 법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하는 거를 허,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이 우주 법계에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이 불기둥, 이 주인공 불기둥이 우주 법계와 연결돼 있고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세상살이가 모두 인연줄에 얽히고설켜서 가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하나 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뚜렷한 공부의 체험을 하고 싶어

질문 저는 이 마음공부를 해 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트이지를 못해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데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역력하게 알아서 주위 도반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이나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 자리에 관하면 소리로 알려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처럼 뚜렷한 공부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하는 공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한마디, 짧은 말이지마는 똑똑히 들으세요. 공부하는 분들이 보는 걸 위주로 하고 듣는 걸 위주로 하고, 모두 그렇게 뚫어지게 꿰뚫어서 보는 거를 아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에 "보는 것도 놔라. 듣는 것도 마음에 놔라." 이러는 원인은 대자비의, 만법의 기능을 가진 그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를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요런 거를 다 놓음으로써, 즉 말하자면 안 되는 거 되는 거,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요건 요렇게 돼 있고, 팔자는 요렇게 돼 있고 죄는 요렇게 지어져 있고, 요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볼 때에, 그러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요건 죄를 요렇게 지었으니까 요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놓은 거니까 꼭 자기네들이 받아야만 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5년 징역을 받았으면 5년 징역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놔라. 꿰뚫어 보는 거까지도 다 놔라. 꿰뚫어 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놔라." 이런 것은 5년 징역을 받을 팔자도, 징역을 안 받는 것도 묵살해 놓고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 자리니라. 부처님 자리에는 어디의 뭐든지, 일체 만법의 근원에는 닥치는 대로 타 버리느니라." 이런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남들은 꿰뚫어 본다는데, 남은 벌써 다 안다는데….' 아, 이거를 원하거든. 자기에게는 그런 게 외려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오는데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든 꿰뚫어 보게 알든 그것은 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가는 길에 이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참섭하러 가는 게 아니네요. 얘기했죠? 가는 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물이 있고 여기 흙이 있고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끄달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지금 가서,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찌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걸 위주로 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차 당부할 것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꿰뚫어 보고 또 알고 이런 것을 원하지 마세요. 왜? 그걸 꿰뚫어 보면 "넌 팔자가 이렇다. 너는 운명이 이렇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있다." 요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밖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놓는다면, 여기 이

☞ A18면으로 계속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탈백 죽순 식물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임해 탈백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마음 공덕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노라

☞ A17면에서 계속

눈으로다가 자꾸 오지 않고 마음으로 들게 하는 것은 요런 소소한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이 팔자 운명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대로 '이건 팔자가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 않은 거예요. '넌 잘 살겠다.' 하면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가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왜 거기에 끄달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불에 임하는 마음 자세

질문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도반들과 담선을 하는 도중에 예불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법우가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밖에 있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기 위해 굳이 예불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불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 나가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예불을 모시는 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예불을 마치고 점심 사시마지를 올리고 저녁 예불을 마칩니다. 그것도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침은 과거고 점심은 현실이고 저녁은 미래로 따져도 됩니다. 그것을 한데 합쳐서 삼심을 일심으로 두고서,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이렇게 열심히, '한마음 공덕이 있게 해 주시라'가 아니라, '한마음 공덕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예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불 모시는 데에 어떤 사람은 내 한마음에서 하라니까 뭐, '한마음에서 하면 됐지. 주인공만 찾으면 됐지.' 이러고선 법당에 안 들어가는 이치가 많습니다. 그거를 수차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꼬박꼬박 아침 점심 저녁은 잘들 잡수시더군요. 어때요?

이 정성이면, 이 마음을 스님네들이 내면 온 누리의 일체 보이는 생명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나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운집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정망해 놓고 하지를 않고 그냥 삼세의 뜻을 한마음으로 쥐고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도 한마음이요, 여길 와도 한마음이요, 집엘 가도 한마음이요, 한마음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스님네들이 한마음을 내서 할 때는 같이 기울여서 하는 것이, 백지장도 마주 들어야 쉽다. 하다못해 창호지를 발라도 그렇고 도배를 해도 그렇고 혼자서는 어렵다. 바르는 놈이 있으면 붙이는 놈이 있고 붙이는 놈이 있으면 바르는 놈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예불을 모시는 사람이 있다면 예불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참 신심이 돋아지고 스님들의 마음도 '아유, 저 사람네들, 저분들….' 이렇게 신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중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저 이 주인공만 찾으면 된다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마음이지 포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모두가 삼정례를 깍듯이 하는 것은 부처님도 내 한마음 속에 계시니까, 바로 부처님의 뜻과 법과 행과 같이 한마음이 된다는 뜻에서 삼정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 놓는 것은 바로 우리 산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향을 켜 놓는 것은 영령들의 양식을 말하고, 또는 공양미를 해 놓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한 그릇을 놓고 중생들을 다 먹이는 태양과 같고, 다 먹이고도 되남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는 뭐, 법당에 안 가도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도, 이게 알고 보면 형상도 자기요, 마음도 자기요, 생명도 자기요,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내 뜻에 있는 것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왔으면 벌써 예를 지켜야 하겠기에 법당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닥친 거를 마다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나 같습니다. 항상, 앞에 오는 거를 막지 말고 싫다 하지 말고 가는 거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지혜가 모두 턱 터져서, 사방이 툭 터지고 지붕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싫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언짢다' 하는 것을 떠나라 하는 것은 항상 다가오는 거를 마다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고 이러라 이런 것입니다. 유도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바늘을 저 벽에다 꽂으면 꽂는 대로 빼면 빼는 대로 이래서는 유도리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빼는 건 빼는 거고 끼는 건 끼는 거지, 뭐." 요렇게 한다면 그거는 유(有)의 물질세계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마는 무(無)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합쳐서 작용을 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법당에도 좀 유도리가 있게, 예불 모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같이 한마음으로서 하는 겁니다. 형상인 부처님께도 우리 마음들이 거기다가 예배를 올리고, 거기다가 부처님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그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흔백이 다,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돼서 부처님이라고 섬기는 그 모습에 운집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부. 그러니 그 또한 여러분의 형상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형상이라고만 보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예절을, 예전에는 삼정례는 물론이거니와 일곱 발자국을 뒷걸음을 쳐서 돌아서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안정된 마음으로 지극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럭하라, 말라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한 예절이죠.

그리고 법당에서는 누가 향을 먼저 꽂았느니 나중 꽂았느니 이런 거를 탓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불과 그 촛불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의 불이 있고 그 불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그 불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불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성이라면 남이 켜 놨어도 그거를 또다시 켜고 그러면서 싸우지 마시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흠집 가게. 또 '아이구, 내가 켜 놔야지.' 하더라도 아, 기다리고 있다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그 불이 그 불이고 그 불이 그 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밝은 태양이, 우리 이 세계에, 지구에 비춰 주는 이 태양은 바로 우리의 한마음에 하나뿐이지.' 하고서 불 하나를 켜 놨다 하더라도 전체 그 불 하나로써 신도님들의 전체 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만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옛날에 부처님을 모셔 놨더니 온통 거기 매달려서 뭐 야단법석이니 이 마음공부 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북하면 그 부처님을, 불상을 내려다가 마당에다 놓고 도끼로 찍었겠습니까? 마음 떠나서는 부처도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없애 보기도 하고, 일원상을 해 놔 보기도 하고, 부처님을 모셔 놓아 보기도 하고, 모셔 놨다 또 부수기도 하고, 허허, 이렇게 노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못 보걸랑은 자기 형상부터 보시고 자기 마음부터 한번 뒤돌아보시고 자기 행동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밝게 보일 겁니다. 말만 잘 들어서, 앵무새처럼 말 잘하라고 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더라도 듣는 게 없이 들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를 바탕으로 두고서 들어야 듣는 것이지, 함이 없이, 들음이 없이 듣는 것이지 뿌리를 망각하고 듣는 것은 그냥 바람결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론에 그냥 접하는 얘깁니다. 말만 잘 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말보다도 실천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 예불 정례 똑바로 잘하시고요. 절에 오는 분이 예불 정도도 모른대서야 그거 말이나 됩니까? 허허. 그러니까 예의법도 법은 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당에 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 이런 거를 좀 잘 정돈해서, 좀 펼치고 크게 생각해서, 여기 와도 예불 모실 때는 반드시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거, 그것은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 제가 드릴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기후, 양 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중증을 앓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인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또한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것을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갈래, 가장구, 가장구 이렇게 벌여서 이름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건 참선입니다. 선에서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한데, 이거 공부할 때도 한군데로, 내면 한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군데다 놓으니까 모아지죠? 한군데로 놓으면은 모아지듯이 모두 일체 돌아가는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천차만별의 일들을, 그것을 이름으로 어떻게 지어서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이 일체가 모두 돌아갑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거를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모두가 움죽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움죽거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안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해 나가려면 잠시라도 찰나찰나 이렇게 안 움죽거리게 할 수 있어야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즉 말하자면 이어지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미래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일초 전 일초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세를 이게 둘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셋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젭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모두가 앞서 입력된 건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하기도 하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뜻이, 이렇게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공감·배려로 포항 지진 극복을

사무량심 '자비희사' 중요
첫 덕목 '자애'는 배려서 시작
연민과 기쁨, 공감서 나와

지진 의한 심리적 상처
함께 치유해 나가야

나눔회향 모임 증가추세
동체대비 실천 기간으로
함께사는 세상 위한 보시를

만공 스님은 '온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 했다. 세계를 연결된 한 몸으로 보는 이 같은 동체(同體)의 관점은 우리 모두를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으로 보게 한다. 모든 존재가 한 몸 한 생명이라는 자각은 자연스레 만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와 둘이 아닌 존재와의 깊은 연결은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바탕으로 한 나눔을 통해 사회적으로 회향된다.

사무량심의 첫 번째 덕목인 자애는 감각적 욕망이 제거된 사랑을 말하며 치유적으로 보면 존중과 배려이다.

포항에 지진이 난 상황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결정은 좋은 배려의 예라고 하겠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워 가슴앓이를 했다고 한다. 존중과 배려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덕목인 연민과 기쁨은 공감에 해당된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한 이들은 현장 자원봉사와 성금 마련 등의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공감하여 마음을 어루만지고 꿰매어주는 이들도 있다. 〈유마경〉에 나오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의 패러디로 짐작되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드라마 대사에는 상대의 물리적 상처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아픔이 묻어난다. 이런 공감이 가능한 심리치료사들은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의 감소를 위해 힐링 콘서트도 열고 현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타인의 심정을 헤아려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의 원동력이 바로 공감이다.

네 번째 덕목인 평정은 평등에 기초한 일치감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포항의 지진에 대해 다양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지진에 이어진 여진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 막말들의 기저에는 너와 나로 편을 가르고 상대에게 책임을 지워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는 탐욕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상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본다면 두 손이 가슴에 모여 합장으로 하나 되는 중도 정견의 일치감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아미타경〉에 보면 공명조 이야기가 나온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이 새는 맛있는 먹이를 위해 서로 싸우다 '저 머리만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독이 든 음식을 상대가 먹도록 전략을 세운다. 그러다가 결국 한 쪽이 독이 든 음식을 먹어 온 몸에 독이 퍼져 결국 둘 다 죽게 된다. 우리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 죽는 공동체 운명인 것을 왜 알지 못할까.

〈화엄경〉 십회향품에 금강당보살의 회향발원이 나온다. "온 누리 모두가 다 행복하소서.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귀의처가 되리라. 그들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이 구경의 편안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 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요즘 나눔으로 회향하는 모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연말연시는 한 몸인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십시일반의 정신을 살려 포항의 지진 피해 지역의 아픈 이들을 공감하고 배려하여 함께 편할 수 있도록 보시하여 우리 국토를 정토로 장엄했으면 한다.

社說

납세 준비, 萬全 기하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해묵은 종교인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교인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종교계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당초 기재부는 모든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불교의 경우 보시 · 법사비 · 강사비 · 기도집전비 · 수행비 등이 해당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주거 · 의료 · 교육 등을 위해 종교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은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 비과세 구분을 벗어나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일정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재부 최종안 발표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계종은 종교인과세 TFT를 구성하고 소임자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 매뉴얼 제작 등을 검토하는 등 각 종단별로 납세 준비를 하고 있다.

분명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납세평등주의는 종교인을 떠나 국민 누구라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안해야 하겠지만, 교계에 혼란이 없도록 각 종단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탈세'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말이다.

이제 현대적 출가 문화 고민해야

출가자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16년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진 후 2년여 만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50명 선도 무너지게 될 상황이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내년 사미 · 사미니계 수계 대상 행자는 80여 명. 여기에 평균 중도퇴사율 27%를 감안하면 60여 명 가량이 수계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 출가자는 120~130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조계종 교육원의 분석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11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주제로 내년 상반기 출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출가자 감소를 더 이상 팔짱 끼고 쳐다볼 수 없어서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1~2월을 중심으로 출가를 독려하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포스터 2500부를 제작해 템플스테이 사찰, 군법당, 대불련, 동국대 등에 배포하며, 당장 12월부터 종단 및 교구본사 홈페이지, 신문 · 방송 등에 출가 모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가자 모집을 위해 종단이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가 홍보도 좋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출가 문화가 현대인에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출가한 행자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여기기보다 후원에 보낼 절집 인력 정도로 여기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종단 차원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종교도 없다. 미래지향적 출가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때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절 오빠' 경전 주인공 된다면

십자가 비해 종교색 강한 卍 문양
본래 불교는 유연성 무궁무진했다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눈에 띌 만큼 크고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순한 패션 아이템의 하나인지 출연자 개인의 신앙심 표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별다른 저항감은 없다. 즉, 십자가는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아이콘임에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써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주 젊은 연예인이나 인지도 높은 유명인사가 공영 방송에 불교를 상징하는 卍 문양의 장신구를 패션 아이템으로, 혹은 개인적 신앙심의 표출로 착용하는 예는 거의 본적이 없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 아이돌 그룹' '일요일, 혹은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교회 다니는 아이돌 그룹'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절 문양 목걸이를 한 아이돌 그룹' 혹은 '부처님오신날 법회나 백중 천도재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은 어딘가 모르게 그림이 어색하다. '교회 오빠'는 당연한 단어이고 '절 오빠'는 상식을 뒤엎는 말로 개그의 소재가 되어버렸다.

1,5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긴 역사만큼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옛날 느낌이 가득한 종교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사상사의 변곡점을 살펴보면 불교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호흡하였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환란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금은보화를 구하기 위해 먼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는 풍난(風難)'과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던 수많은 상인들이 도적을 만나는 적난(賊難)'은 당시 불교가 어떤 그룹들에게 지지되어 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풍난의 경우는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오가는 해상 무역 종사자들을, 적난의 경우 로마나 중국 등과 육상 무역을 하는 대상단(大商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해상 및 육상을 통해 외국과 무역을 행하는 집단은 소규모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거대 해운 기업과 유통 운송 기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의 유명한 장자궁자(長者窮子) 비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자(長者)'라는 말은 상인(商人)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슈레스틴'의 번역어다. 경전은 구체적으로, 그 장자의 이자가 다른 나라까지 미치고, 그의 집에는 상인과 고객이 매우 많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법화경〉이 유포된 지역과 시기가 금융업 및 화폐 경제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화경〉 및 대승불교를 지지한 집단들은 거대 금융 기업에 해당하는 대자본가 집단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대승불교의 발상지라고 추정되는 고대 남인도의 여러 도시에는 왕보다 더 부유한 해상 무역상들이 존재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불교도였다고 한다. 즉 불교는 이러한 신흥 세력들을 경전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불법(佛法)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불교는 언젠가 훗날 '아이돌 절 오빠'가 불교 설화(說話)에 한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유연성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응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길이 : 120㎝ × 폭 54㎝ | ■ 가격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노래 부르는 '문화공양주' … "찬불가는 훌륭한 법문"



굴곡진 스님의 인생에서 힘이 된 것은 바로 불심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사찰서 출가의 길로 나선 자명 스님은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불교전법의 노래를 부른다.

그대는 자비보살 자명 스님 (53 · 영덕 기원정사 주지)

인생의 버팀목, 불교

고1때 양친과 형제 잃어
불교학생회서 힘듦 극복
대학 진학 후 고학의 길
불심으로 이겨내, 취업 성공

불교로 인생 2모작

1995년 경남도의원 당선
2002년 선거법위반 실형
악연으로 정치 접고 방황
2005년 출소, 출가 길 나서

공양, 참 좋은 일이다. 부처님은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올린다는 것, 마음을 담아 전한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일이다. 공양 중에 '음성공양'이 있다. 노래하는 스님, 찬불가 '영가전에'의 자명 스님은 음성공양을 본분사로 발원했다. '땡큐 붓다 콘서트', '뮤지컬 니르바나', '뮤 · 드 · 깨-한 웅큼의 빛' 등 다양한 문화법석을 선보이고, 올해 다섯 번째 음반을 발표한 스님은 자신을 '문화공양주'라고 부른다.

슬픈 가족사와 위로가 되어준 불교

"아버님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생계는 어머님의 몫이었죠. 행상으로 남편과 4남매를 책임져야 했죠."

자명 스님은 마흔 살의 나이에 늦은 출가를 하는데, 스님의 불연은 힘겨운 가족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어머님이 세상을 옮긴다. 위암이었다. 3년 뒤, 모친의 세 번째 제사를 모신 다음 날, 아버님이 어머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듬해, 큰 형이 아버님을 따라간다. 스님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다음해였다. 작은 형이 큰 형을 따라간다. 결혼한 누님은 다른 집안의 식구였고, 스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어찌 한 가족이 그렇게 흩어질 수 있단 말인가. 쉽지 않은 가족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스님은 홀로 됐다.

"대학을 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없었죠."

깊은 방황이었다. 그때, 스님을 위로해 준 것이 불교였다. 불교의 '불'자도 몰랐던 스님이었다. 당시 스님이 다니던 마산고등학교에는 불교학생회가 있었다. 방황하는 스님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스님의 친한 선배가 방황하는 소년에게 부처님을 소개한 것이다.

"선배를 따라 불교학생회 법당에 갔어요. 부처님을 처음 보았죠. 그날부터 살 수 있었어요. 저녁예불 시간은 저에게 촛불 같았어요.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형님들이었어요. 예불문과 독경 소리가 가슴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랬다. 스님은 그날부터 불교에 기대고 살았다. 대학진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스님은 수업시간에 아예 교과서 대신 불교교리와 불경을 읽었다. 스님은 체육대회, 교리퀴즈대회 등 불교학생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방황을 끝내고 세상 속으로

스님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스님은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다시 꾼다.

방황은 끝이 났다. 소년도 끝이 났다. 스님은 대학에 진학한다. 고학이었다. 휴학과 복학이 거듭됐다. 하지만 스님은 고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스님은 그 시절을 '불꽃같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한다.

"남들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고학'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배를 타기도 했던 때는 꽤 긴 시간을 먼 곳에 있어야 했었죠. 저는 그런 시간을 고학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자유롭고 불꽃처럼 살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젊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을 밀어냈던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억대 연봉과 도의원 당선

"연봉 1억 2천."

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선배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입사한다. 그리고 스님은 신화를 이룬다. 연봉 1억 2천을 벌었다. 당시 프로야구 선수 최초의 억대 연봉이 1억 5백이었다. 스님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스님은 제대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스님의 길이 아니었다. 스님이 보험사에 입사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였다. 스님은 전혀 새로운,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된 스님의 일을 만난다. 스님의 전공은 '정치외교학'이다. 스님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제5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다.

"정치를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선배가 보기에 답답하여 농담처럼 던진 말이 씨가 됐어요. '선배가 안 하면 제가 해요!'라고 했더니 저보고 하라더군요."

그랬다. 그 길로 스님은 그 길을 걷게 된다. 스님은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출마했고, 짧은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당선됐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쌓은 인적 기반이 도움이 되었다.

"그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보다 생각했어요."

스님은 그때 정치에 뜻을 세우고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스님은 이어진 선거에서 낙선을 거듭한다.

절처봉생(絕處逢生)

"징역 10월."

그토록 쓰디 쓴 시간을 보내며 살아온 스님이었다. 그런 스님에게 세상은 아직도 차가웠다. 거듭된 낙선으로 인해 스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도 삶은 접을 수 없는 것. 2002년, 스님은 출마 대신 다른 출마자의 선거캠프를 맡게 된다. 낙선은 했지만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기반은 여러 모로 가치가 있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선거캠프에서 스님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기획실장을 맡은 스님은 자신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집중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이 맡은 캠프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모조리 떠안고 수감된다. 스님의 죄명이 아니었지만 스님은 그 짐을 본인이 지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짐 속엔 결코 가볍지 않은 '시험'이 들어있었다. 어려운 '공부'가 들어있었다.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저를 돕는다면 실형을 받고 복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캠프측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스님은 모든 죄를 떠안고, 또한 낙선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은 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정공 스님

B5
문화
선진 스님 설치미술전 '즉시현금'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자명 스님은?

1965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5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을 역임했고, 2005년 마산 혜천사에서 출가했다. 인천 영종불교회관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영덕 기원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2년 찬불가 음반 1집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을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총 5집 음반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땡큐 붓다 콘서트' '뮤지컬 니르바나' '뮤드깨-한 웅큼의 빛'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 등 매년 새로운 문화포교 프로젝트 공연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 2016년 제11회 대한민국찬불가요대상에서 1집 음반 타이틀곡 '영가전에'가 찬불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명 스님의 앨범들.



찬불가를 녹음중인 자명 스님. 스님의 노래 속에는 인생의 애환이 담겨있다.



2016년 1월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구호 기금을 기부한 자명 스님.

"범부 중생의 소박한 삶 노래할 터"



'자명 스님' B1면에서 계속

문화로 포교 새 전형 열다

스승 일갈에 본분사 찾아

2012년부터 음반 5집 발표

'땡큐 붓다…' '니르바나' 선뵈

"부처님 가르침 있다면 수행"

"어린 시절 홀로됐을 때보다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옛날 세상으로부터 받은 절망은 슬프긴 했어도 아픈 일은 아니었는데,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슬프면서 아팠어요. 한동안 그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이 새로운 길을 만나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했죠."

출소, 출가

출소. 2005년 1월 30일. 스님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세상으로 나왔지만 세상은 차가웠다. 평소 친했던 스님의 선배가 스님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 마산 근교의 작은 절이었다.

"석 달만 살게 해 주십시오. 보시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시 대신 예불 올리고 공양 지어주시게."

자명 스님은 누구보다 불교학생회 시절을 열심히 살았던 학생이었다. 스님에겐 〈반야심경〉과 〈천수경〉, 예불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머리만 깎지 않았지 충분한 행자이고 공양주였다. 스님은 열심히 예불을 올리고 주지 스님의 공양을 지으며, 그 동안의 힘든 시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슬렀다. 두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스님의 마음속에서 문득 출가에 대한 마음이 일기 시작한다. 가랑비에 옷이 젖었을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또한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주지 스님과 저녁공양을 할 때였다.

"자네는 머리 깎고 출가할 인연이야."

자명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연이라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자명 스님은 밥상을 물린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깎았다. 마흔 살의 출가였다.

마침내 찾은 길, 노래(찬불가)

세월이 흘러 스님은 은사를 떠나 토굴을 짓고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한 스님은 마산과 서울을 오가며 포교당을 열고 출가자로서 전법에 진력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처럼 포교당은 채워지지 않았다. 스님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포교당의 법당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몸과 마음이 한 그릇에 담겨 있지 않았다. 수행자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었다. 스님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스승'을 만난다. 영경 스님이다.

"사나이 대장부라면 칼끝의 꿀을 빨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수행자라면 마땅히 꿀단지조차 던져서 깨버려야 할 것이다."

일갈이었다. 스승이 건넨 그 조용한 일구가 모든 질문의 답을 냈다.

스님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속세의 때를 아직도 다 엷애지 못한 것. 스승의 일갈은 그것이었다. 스님은 생각했다. 바라는 것 없이 마음을 다해 부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것은 '노래'였다. '자명'의 길은 노래였다. 스님이 힘들었던 고교시절 불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불꽃처럼 살았던 스님의 대학시절을 위로했던 것은 음악이었다. '들국화'와 '시인과 촌장'이 들려주는 노래였다.

"'삶'이 담긴 진솔한 그 노래들을 듣고 따라 부르다보면 노래가 삶을 위로했죠. 이제 불가의 옷을 입었으니, 중생을 위한 찬불가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문화법석을 열다

"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혜 드러내어 생사고해 벗어나서 해탈열반 성취하소서~♬"(자명 스님 1집 음반 중 '영가전에' 중에서)

2012년 마침내 자명 스님은 찬불가 1집 음반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을 발표한다. 그리고 첫 무대. 스님은 인천 석화사 산사음악회에서 부처님의 노래를 부른다. 부처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 힘겨운 세월을 지나온 것일까. 스님의 노래 속에선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진솔한 스님의 노래는 법석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자명 스님의 음성포교는 시작됐다.

스님은 본격적인 문화포교를 위해 2013년 영종불교회관을 열고 새로운 문화법석을 시도한다. 법문과 공연을 한 자리로 불러내 문화포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땡큐 붓다 콘서트'가 그 시작이다. 새로운 개념의 법석이었다. 신선했다. 많은 대중을 부처님 가까이로 불러냈다.

"부처님의 고마운 마음을 문화에 담아서 회향하는 것이죠."

스님은 새로운 법석을 그렇게 설명했다. 첫 해는 매달 콘서트를 열었다. 스폰서를 찾는 일이 힘겨웠지만 스님의 원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콘서트가 거듭되면서 스님은 생각했다. 법석을 좀 더 넓히고 새롭게 만들어 불교문화, 포교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싶었다.

2014년 1월,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새로운 뮤지컬이 공연된다. 스님이 기획한 천도재 뮤지컬 '니르바나'다. 불교의 아름다운 장면과 음성으로 채워진 뮤지컬 '니르바나'는 500석의 대중을 울렸다. 뮤지컬 '니르바나'는 초연 이후 두 차례 더 공연했다. 스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포교를 생각했다. 2016년엔 '가족'을 테마로 하여, 역시 법문과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법석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를 공연했고, 2017년엔 십우도의 가르침을 '뮤직 · 드라마 · 깨달음(일명 뮤드깨)'이란 새로운 장르로 선보인 '뮤드깨-한 웅큼의 빛'을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공연했다. 2018년 자명 스님의 문화프로젝트는 '다독다독, 쓰담쓰담, 토닥토닥'이다. 광주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했다. 스님은 내년 정식 공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스님의 원력에 많은 후원이 있기를 기원한다.

스님은 음성포교 외에도 '170원의 생명나눔'과 '영덕 천천불광 공덕회'를 설립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대중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스님은 올해 자신의 다섯 번째 음반 '저 나그네 구름을 벗 삼은 건'을 발표했다.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음반은 범부중생의 소박한 삶의 정서를 담았다.

"처음엔, '스님이 참선, 염불 않고 노래한다'고 싫은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했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두 공부였으니까요. 참선으로 얻을 수 있는 공부도 있고, 염불 일구가 해내는 불사가 분명 있지만 찬불가 한 소절에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들고 간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모두 성불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사진촬영을 위해 법당 앞에 선 스님은 넉넉하게 두 팔을 벌려 찬불가 한 곡을 공양했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㉔ 정공 스님

인터넷 · 위성TV 강의로 말법중생 구제

> 공경심으로 〈무량수경〉을 한번 읽으면 아미타부처님이 우리에게 한번 관정(灌頂: 지혜를 전수함)할 뿐만 아니라, 일체 제불 역시 우리에게 관정한다. 만약 항상 독송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며, 이것이 바로 감응이다.
>
> 〈무량수경 심요〉

천만 명이 인터넷 · 위성TV강의 들은 선지식

'염불각자열전' 제22호에 〈무량수경〉 선본(善本, 회집본)을 발행하고 정종학회(淨宗學會)를 창립해 〈무량수경〉 수지독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하련거(夏蓮居, 1886-1965) 거사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직제자인 황념조(黃念祖, 1913-1992) 거사가 〈무량수경〉을 정토와 선, 화엄과 밀교 법문으로 종횡무진 해설한 〈정토대경과주(淨土大經科註)〉를 통해 그 심오한 뜻을 드러냈다면, 정공(淨空, 92) 스님은 두 거사의 유훈을 이어 전 세계 200여 정종학회 지회와 인터넷 및 위성TV 강의를 통해 정토법문을 글로벌화시킨 선지식이다. 직 · 간접적으로 그의 법문을 들은 불자만도 천만 명이 넘을 정도다. 최근,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여러 정종학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각종 법문을 통해 〈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염불하는 정토행자는 전세계에 약 3억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공 법사

'불타교육'으로 중화권 불교 중흥 이끌다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불교 중흥의 중심으로 떠오른 정종학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정공 스님의 일생은 '불교'를 풀이한 '불타교육(佛陀教育)'이란 말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일체중생에게 가르치신 다원적이고 지극히 선하며 원만한 사회교육"임을 처음으로 주창하며, 불타교육기금회(基金會)를 창설, 지구촌 불자들에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인 정토법문을 전하고 있다.

전란 겪으며 불법침구 발심

이병남 거사에게 가르침 사사

인터넷 포교 적극 활용

2차대전 겪고 방동미 교수 만나 불교입문

정공 스님은 1927년 3월 18일, 중국 안휘성(安徽省) 려강현(廬江縣) 탕지진(湯池鎭)에서 태어났다. 그는 민국 초 전란시기에 태어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무지하여 상호대립하고 가정 및 사회불안을 초래하며 정쟁(政爭)과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도처에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묻고 그 해결방안을 찾았다.

이런 구도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난 선지식이 바로 대 철학자 방동미(方東美) 교수였다. 1953년, 방 교수 문하에서 그는 "학불(學佛)은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주와 인생의 진상(眞相)을 탐구하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화엄경〉의 선재동자와 같은 구도심으로 정공 스님은 곧이어 밀교와 정토종의 선지식을 잇달아 친견하게 된다. 장가(章嘉) 대사를 3년, 이병남(李炳南) 거사를 10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고 밀교와 정토법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것이다.

장가 대사의 알아차림 · 내려놓음 · 보시 공부

티베트 고승인 장가 대사로부터는 "간파(看破: 알아차림) · 방하(放下: 내려놓음) · 보시(布施)"의 방법을 통해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 정공 스님은 훗날 〈관세음보살보문품 강기(講記)〉에서 "이 여섯 글자를 대사님은 6년만 실천하면 저절로 감응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잘 듣고 6년을 실천했더니, 참으로 감응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스님은 이병남 거사로부터는 "일문에 깊이 들어가 오랫동안 몸에 배이도록 닦는(一門深入 長時薰修)" 법을 통해 일체 경전에 깊이 들어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병남 거사에게 경전과 '지족'의 삶 배워

정토종 제13대 조사인 인광 대사의 제자인 이병남 스승은 오로지 정토만을 닦은 분이었다. 하지만, 정공 스님의 당시 목적은 경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었기에, 정토법문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 했다. 이병남 거사는 정오에 한 끼 식사만 했는데, 스님도 스승의 생활방식을 배웠다. "평생 일종식을 해나가고, 남의 도움을 빌지 말라"는 당부를 실천해 지족(知足)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이병남 스승 문하에서 보리심을 발한 정공 스님은 1959년, 32세의 늦은 나이로 타이베이(台北) 임제사(臨濟寺)에서 출가해 각정(覺淨)이란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출가 후 성인의 도덕교육을 회복하고 대승 불법의 자비정신을 홍양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단 없이 경전을 강설하고 불학(佛學)을 가르치겠다고 서원했다.

화엄경 강의 17년만에 정토 진수 깨달아

이렇게 '불타교육'의 대중화를 발원한 정공 스님은 1971년(민국 60년) 타이베이 화장(華藏)불교도서관에서 한영(韓鍈) 보살의 호지(護持)를 받아 〈화엄경〉 강의를 시작했다. 경전 강의를 자신에게 맞는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 스님은 각고의 노력으로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였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강의한 끝에 스님은 마침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화엄세계의 후보불(後補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했으며, 그들이 가르친 선재동자가 닦은 수행법 역시 염불법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확신에 찬 스님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다시 정토삼경(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을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 때의 대덕들이 설한 "〈화엄경〉과 〈법화경〉은 〈무량수경〉의 안내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법문이 진실임을 확인한 것이다.

한영 보살 외호로 정종학회 세계화

10년 간의 경전 강의는 화장불교도서관 한영관장의 외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30여년간 정종학회의 세계화를 이끌고 1997년 3월, 아미타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자재하게 왕생하였다.

1982년부터 미주 포교 성공

정공 스님은 1982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정토법문을 전하려 했지만, 그때 많은 수행자들이 스님에게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니 절대로 염불법문을 강의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미국에서는 모두들 선(禪)과 밀(密: 티벳 밀교)을 말하기 때문에, 스님은 처음애는 구두선(口頭禪)을 설해 이미 선을 배운 사람들을 항복시켰고, 그 후에 다시 밀교를 가르쳐 조복시킨 다음 정토법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86년, 드디어 스님은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특구에서 화부(華府)불교회를 설립, 〈무량수경〉 선본을 강설했다. 본격적인 미주지역 포교가 시작된 것이다.

英 황실 환대 받으며 서구에 염불법 전해

1995년, 정공 스님은 이목원(李木源) 거사의 호지를 받아 싱가포르거사림과 정종학회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2001년 호주에서 정종학원(淨宗學院)을 설립, 〈무량수경〉 선본을 강설하였다. 2015년에는 영국에 정종학회를 설립하였다. 스님은 여러 정종학회 불자들과 영국에서 법회를 열어, 영국 황실의 환대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도 스님은 호주 정종학원에서 머물면서 수차례에 걸쳐 서구인들에게 〈무량수경〉 선본을 강설하며 정토법문 홍포에 진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공 스님은 불타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부수의 정토 경전을 인쇄해 대중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어 법연을 맺게 했다. 특히 〈건륭대장경(乾隆大藏經)〉 · 〈사고전서(四庫全書)〉등을 인쇄하여 전 세계 고등학부, 국가도서관 및 각종 종교단체에 기증해서 이를 소중히 보관하게 하고 학술연구용으로 쓰게 하였다.

실시간 사이버 강의로 정토종 세계화

정공 스님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포교방법도 적극 활용하였다. 스님은 21세기의 도량은 사원이 아니라며, 영상설비 · 인터넷 · 위성TV 등을 활용해 부처님 법문을 개인의 TV나 컴퓨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어질고 자비롭고 넓게 세상을 사랑하는(仁慈博愛) 불타교육을 실현했다. 스님은 인터넷과 위성TV를 통해 정토 5경은 물론 〈화엄경〉 〈능엄경〉 〈지장경〉 등 수십 경론을 강설하는 한편 〈제자규(弟子規)〉 〈요범사훈(了凡四訓)〉 보급을 통해 인과응보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고향에서 인성 · 도덕교육 시범사업 성공

정공 스님은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소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국제평화회의에 참가하는 한편, 중국에 '화해 시범구(區)'를 건립하기도 했다. 스님은 고향인 안휘성 려강현 탕지진(湯池鎭)에 '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윤리도덕교육 교사를 길러내어 작은 읍 전체 주민에게 오륜(五倫)교육을 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화해사회(和諧社會)'가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92세 노구로 강의하며 말법중생 구제

"마음 거울 밝아서 비침에 걸림 없고/ 심량(心量)은 평등한 사랑 하나로 항하사 세계에 두루 하시네/ 인간의 스승 되시어 세상의 모범 행하시고/ 자신은 온갖 고통에 빠질지라도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으시네."

정종학회의 스승에 대한 헌사(獻詞)처럼, 60여 년 간 하루도 불교 강의를 쉬지 않은 정공 스님의 현재 진행형인 일생은 "불학으로 인간의 스승 되시고, 행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시다"라는 찬탄으로 요약된다. "진성(眞誠) · 청정 · 평등 · 정각(正覺) · 자비 · 간파(看破) · 방하(放下) · 자재(自在) · 수연(隨緣) · 염불"은 스님이 세상을 살아온 원칙이었다. "인자박애(仁慈博愛)"와 "수신을 근본으로 삼고 교학을 우선함(修身爲本 教學爲先)"은 경전을 강설하고 가르치는 순일한 요지였다. 오늘도 92세의 노스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위한 장비와 간이 병풍을 휴대한 체 지구촌 어느 곳에서 법을 설하고 있을 것이다.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스님의 정토법문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연이 조성되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29~2017.1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의 평화는?… "놓아버림, 멈춤 필요"



마음 다루기 수업

혜안 스님 지음

싱긋 펴냄 | 1만4천원



반조, 마음을 비추다

아잔차 지음

혜안 스님 옮김

싱긋 펴냄 | 3만1천원

젊은 한 서울대생은 학과 공부를 잊고 불교에 심취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한 수순처럼 출가 했고 '혜안' 이란 법명을 얻었다. 그 후 해발 900미터에 있는 경남 산속 깊은 암자에서 최선을 다해 정진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깊은 나락을 맛보는 순간이 찾아왔다.

혜안 스님〈사진〉은 그 순간을 "10여년 오랜 시간 해온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난파선처럼 저의 삶과 수행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스님은 바른 정진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며 태국으로 날아갔다. 태국서 만난 책, 아잔 브람 스님의 저서 〈Mindfulness, bliss, and beyond〉를 읽고 바른 선정에 대해 해답을 찾았다. 선정에 들고자 노력하고 의지를 크게 가질수록 오히려 주저앉게 된다는 설명이다.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곧 욕심(貪)이 되고 갈애는 곧 분노(嗔)가 되며 어리석음으로 헤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이 찾은 해답은 '놓아버림' 이였다. 그것은 욕망의 갈애를 끊고 선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혜안 스님의 저서 〈마음 다루기 수업〉은 놓아버림을 통해 얻은 자유와 가벼움으로 삶을 관조해 얻은 성찰을 편안히 담은 책이다. 명상 초급 입문자가 가볍게 읽고 접근해도 좋을 만큼 쉽지만, 또한 수십 년 공부한 불교 수행자가 읽어도 찾아낼 숨은 보물로 가득하다. 〈마음 다루기 수업〉은 말 그대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편안히 일러주는 지침서다. 혜안 스님은 책머리에 마음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낯선 길이라고 표현했다.

"항상 뭔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마음을 써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지려면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낯선 길은 놓아버림, 마음의 멈춤, 만족의 길입니다. 이것이 곧 명상의 길이지요.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마음 길들이기' 는 마음을 가볍게 비춰 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2부 '명상을 만나다' 에서는 명상을 쉬운 언어로 담아 안내하는 조언들로 가득하다. 3부 '명상 수업' 은 혜안 스님이 직접 강의한 '불교명상 입문' 강의를 바탕으로 일상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다룬다. 호흡명상, 자애명상, 걷기 명상의 기본 방법을 알려준다.

한편, 혜안 스님은 저서 〈마음 다루기 수업〉과 함께 위대한 스승 아잔 차 스님의 법문집 〈Food for the heart〉를 〈반조, 마음을 비추다〉로 재 번역해 출간했다. 〈Food for the heart〉는 〈아잔차



'놓아버림' , 욕망 갈애 끊고 선정 가는길

마음다루기… "놓아버림이 주는 성찰"

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번역 됐으나 절판됐다.

태국 불교의 큰 스승인 아잔 차 스님은 파퐁 사원에 머물며 전 세계 곳곳서 찾아온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쳤다. 그의 생생하고 진솔한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었고, 그의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 수백 개의 분원을 세워 불교와 불교 명상을 전한다. 미국의 명상 지도자 잭 콘필드는 그를 내가 만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했다.

아잔 차 스님은 늘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법문 했고, 생동감과 유머가 넘치는 그의 법문은 그곳에 자리한 많은 이들이 기록 녹음해 보존되고 전파됐다. 아잔 차 스님의 이런 법문들을 모아 스님이 입멸한 지 10주년 되던 해에 〈Food for the heart〉를 출간했고, 〈반조, 마음을 비추다〉는 이 책을 번역해 펴낸 것이다. 태국과 스리랑카, 미얀마서 수행했으며, 아잔 차 스님의 제자인 아잔 브람 스님의 호주 보디냐나 사원서 정진한 혜안 스님의 정선된 번역으로 〈반조, 마음을 비추다〉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성미 기자

▲옮긴이 **혜안 스님**은?

고교 시절부터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학에 입학해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통도사 청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범어사서 불교 경전을 수학한 후 국내의 선원과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호주 등의 사찰 및 수행처서 정진했다. 명상의 스승으로 삼게 된 아잔 브람 스님과의 인연으로 호주의 보디냐나 사원에서 수행했다. 그 후 창원 신불사의 주지로 일반인들에게 명상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 선원에서 정진중이다. 저서로 〈마음 다루기 수업〉, 역서로 아잔 브람 스님의 명상지침서인 〈놓아버리기〉가 있다.

"부처의 삶은 버리는 삶"

구하지 않은 삶의 즐거움

목종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5천원



"여러분은 부처님보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왜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목종스님의 첫 말씀집이다. 108개의 정갈하고 짧은 잠언 형식의 감로법문들이 담겨 있다. 에세이보다 간결하고 깨달음의 핵심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휴식하듯 읽을 수 있는 잠언 모음집이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인 목종 스님의 주 관심사는 행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느라 분주히 자신을 괴롭히며 뛰어다니는 시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잠언집을 통해 전한다. 우리는 보통 구하고 싶은 대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 탐욕스런 이는 남을 괴롭혀 이를 성취하고 성실한 이는 노력을 통해 성취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는다 해도 그 일조차 과거가 되어 서서히 기억 속에 머물다 사라진다. 그렇다면 남을 괴롭혀 얻는 행복과 단순한 욕망의 성취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108개의 짧은 감로법문 담아

"생명에게 고통말고 기쁨 주라"

목종 스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은 행복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 하고는 다시 묻는다. "부처의 삶은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보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왜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라고.

그러면서 이 책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마음에 지닌 것을 구태여 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다.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자신의 마음에 이미 있음을 깨달아, 더는 구하지 않는 삶에는 타인을 향한 나눔이 있고 비움을 넘어선 버림이 있다. 목종 스님은 꿈틀대는 작은 미물 하나에도 다정한 눈길을 보내고 모든 생명에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다.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지으니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고통을 주지 말고 기쁨을 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과거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묵묵히 현재를 사는 자연을 통해 삶의 자세를 발견하는 그리고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불교적 사유가 담긴 〈그 귀한 것을〉처럼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을 얻는 길을 안내한다. 비불자에게는 세상을 향한 부처님의 자애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며, 신심 깊은 분들에게는 기존의 수행 관점을 점검하는 계기를 줄 선물 같은 책이다. 김주일 기자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본 '정신건강'

정신건강교실

최훈동 지음 | 모과나무 펴냄 | 1만 6천원



"명상과 의학을 공부한 지 45년, 정신과 의사가 된 지 35년이 넘었다.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를 동서양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전인적 의사이고자 정진했던 마음이 전해지면 기쁘겠다."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해 쉽게 소개하고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진단과 치료의 기본을 안내할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교사와 종교인들에게도 마음공부와 정신건강에 대한 길잡이가 될 책을 저술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정신의학 안내서를 넘어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 가능하도록 돕는 마음 치유서가 되고, 종교적 영성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첫째는 마음의 병은 병이 아니라는 시각, 다른 하나는 병은 병이지만 특별한 병이라는 시각이다. 병이 아니라고 보는 쪽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된다' 라거나 '신경을 안 쓰면 되지' 하면서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돌린다. 여기에는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숨어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정신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특별한 병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정신질환을 귀신이나 전생의 업보 때문에 생긴 괴이한 병으로 여긴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시각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편하게 찾지 못하도록 막는다. 학회에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완고하다.

1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비롯한 마음의 정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다. 2장은 정신과 진료실에서 흔히 다루는 질환들을, 3장은 상담치료실에서 만나는 사례들 가운데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살펴본다. 4장은 마음 치유의 방법으로 서양의 심리치료와 함께 명상의 과학적 연구와 명상치유법을 소개해 영적 건강을 도모한다. 김주일 기자



설치미술 부처서 新불교를 보다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12월 6일부터 '즉시현금' 展



선진 스님의 작품 '자아의 해방'(사진 왼쪽)과 '궁리'. 선적인 감각을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불탑의 또 다른 이름인 스투파는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이기도 하다. 신앙으로 빚어낸 다양한 문양과 서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현대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설치미술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의 불탑과 사찰 전각 등은 일종의 설치미술로도 볼 수 있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설치미술전시회 '즉시현금'전은 이런 의미에서 불교의 현대적인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다.

'즉시현금'전을 개최하는 선진 스님은 불복장 전문가이자 설치미술가로 유명하다.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미술전을 개최해 이번 즉시현금전까지 총 1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선진 스님의 작품은 순수한 예술작품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 소품 하나 하나에 보는 이들의 친근감과 편안함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즉시현금'전에는 총 15점의 설치미술 작품이 선보인다. 만다라를 상징하는 레이저 음악판을 바라보는 불상으로 구성된 '궁리'는 동안거 기간 화두참구에 들어간 수좌 스님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랩으로 감싸고 이를 노끈으로 묶은 불상 형태로 구성된 '자아의 해방'은 육체적인 욕망과 몸에 얽메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스님은 참나와 진리가 떨어져 있거나 얻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지금 여기에서 대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진정한 자아와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는 참마음이며, 바로 지금에 현존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195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81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를, 1986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에게 비구니계를 받았다. 현재 대구 보현암 주지로 대구미술발전위원과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또 인터넷 카페모임 '하루헌'을 조직해 7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생명과 평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진 스님은 "불교 사상을 담은 미술작품으로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전시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견작가 초대전 '고요해야 얻어지는' 展

12월 1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중견 작가들이 신진 작가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초대전이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2월 12일까지 강석문, 김일용, 박종갑, 왕지원, 제이미 리, 한승구, 황선태 등 중견 작가들이 참여하는 '고요해야 얻어지는' 전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 간 진행된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공모전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용 '날숨 들숨', 박종갑 '스미다', 한승구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등 불교 사유를 작품화한 회화와 조각, 디지털 프린트와 설치작품 등 폭넓은 미술품들이 전시된다.

불일미술관 학예실장 여서 스님은 "조각으로, 움직이는 불상으로, 혹은 설치미술로 공간을 그림으로써 고요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며 "아름답고도 간결하며 단순한, 그러나 내면에 꽉 찬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합창제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 大賞

조계종, 11월 27일 '2017 불교합창페스티벌' 개최



불교를 대표하는 합창제인 불교합창페스테벌의 올해 대상에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7일 더케이아트홀에서 '2017 불교합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치열한 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사찰 합창팀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이날 대상인 그랑프리는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에게 돌아갔으며, 입상은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 강원 연합합창단 · 서울 관문사 금강합창단 · 경남 양산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 ·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합창단 · 계룡 호국사 학림사 여시아문 룸비니합창단 · 서울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이 수상했다. 그랑프리 수상팀은 300만 원, 입상팀은 150만 원의 상금 · 상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제4회 신작찬불가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 창작 찬불가를 선보인 불교음악인 8인을 시상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국제아트페어, 12월 7일 벡스코 개막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아트페어(BIAF2017)가 12월 7일 부산 센텀시티역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막한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국내외 유명작가 376명이 출품한 3000여 점의 작품이 차려지는 국내 최대 미술장터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제아트페어에서는 아시아미술원(AAA) 정회원 40개 부스, 신진작가 초대 20개 부스, 일반작가 81개 부스, 해외 특별부스 일본 등 6개 부스, 인도 옥션 · 갤러리, 1888년 설립해 127년 인도미술의 역사를 이어온 봄베이 미술협회(bombay art society) 8개 부스가 마련됐다.

특히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고찰의 전통문양을 재현한 불교문화재 탁본작품이 특별전으로 선보인다.

신진 초대작가는 성유진, 김건일, 김태연 등 20명과 일반부스 참여 작가로 정일진과 이담 등 108명으로 모두 171명이 참여한다.

인도 특별부스에서는 알폰소 아를도스, 름 빨라니압판, 더글라스, 스미타 등 내노라하는 인도미술의 거장이 직접 내한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이외 인도 인기작가 198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정림사지박물관 특별전 '사비의 향기' 눈길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 정림사지박물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사비의 향기' 기증 · 기탁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여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증 받고 기탁 받은 유물들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60여점을 선별하여 정림사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소장유물로 부여의 역사는 물론 영정으로 보는 부여의 인물, 부여 민칠식가(家)와 정언욱가(家)의 고문서를 통해 부여의 명가(名家)를 살펴보는 유물과 교육의 장(場)이었던 부산서원과 칠산서원의 고문서와 목판각, 우리 내 마음속의 신앙을 보여주는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과 은산 금공리 산신도 까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부여의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노덕현 기자

'실버 예술魂' 담아낸 작품세계 펼쳐져

탑골미술관, 내년 1월 19일까지 대동제 전시회 열려



탑골미술관에 전시된 어르신들의 서예작품. 어르신들의 열정이 돋보인다.

복지관 문화예술동아리서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작품세계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은 11월 29일 관내에서 '2017 탑골대동제 전시회'를 개막하고, 수채화 · 사군자 · 유화 · 한글서예 등 각 동아리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내년 1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는 총 4분야로 나뉜다. 1전시(~12/6)는 서예동아리(서우회 · 선묵회 · 안묵회 · 한글서예)의 서예전, 2전시(12/8~15)는 탑골문화예술학교 유화반 · 아크릴반 · 서양화동아리 · 수채화반 등의 서양화전, 3전시(12/28~1/6)는 한문행서 · 한문해서 등 서예전, 4전시(1/9~19)는 사군자 · 한국화 등 동양화전이다. 전시회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55개 수업반과 탑골문화예술학교 소속 작품, 31개 동아리 작품 등이 전시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공연과 전시 수준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일궈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열정을 이끌어냈는지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건강은 물론 주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탑골대동제가 어르신들의 좋은 동기이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 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저 절로 가는 길
㉔ 망월사에서 회룡사 가는 길

부처가 되는 '달의 길', '용의 길'


망월사 혜거 국사 부도탑


이연욱 화백이 그린 무위당 벽화

- 걷는길 : 망월사역 – 엄홍길 생가터 – 덕재샘 – 망월사 – 포대능선 – 사패능선 – 안말능선 – 숨은폭포 – 회룡사 – 회룡역
- 거리와 시간 : 9km정도, 4시간 예상


도봉산 봉우리에 둘러싸인 망월사 영산전. 영산전에서는 자연스럽게 도봉산 주봉인 자운봉을 바라보게 된다.

달이 보이지 않으면 어둠을 탓한다. 달이 보이지 않은 것이 달 때문이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 햇빛을 가릴 때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나? 하지만 그걸 누가 기억하리. 달은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달에 반사된 햇빛이 달빛이란 사실에 쉬이 생각이 가닿는 중생은 드물다.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망월사(望月寺)에 이르기까지 적이 다섯 번은 망월사를 가리키는 표지를 보았다. 망월사에 가려고 서울을 벗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저 없이 수도권 전철역인 망월사역에 내린다. 역 이름이 절 이름인 것으로도 망월사를 찾는 잦은 발걸음을 감지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전철에서 내린 나는 등산객들에 휩쓸리듯 망월사 초입인 원도봉 탐방길로 걸어갔다.

그 북새통에서 춘성(春城)스님의 단속한 삶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다. 춘성은 스승으로 모셨던 만해가 3·1운동으로 수감되자 옥바라지를 위해 서울 도봉산 망월사로 옮겼다. 춘성은 땔감이 가득한데도 스승을 생각해 냉방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잤다. 이불을 덮지 않는 춘성의 잠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춘성은 이불을 '이불(離佛)'이라면서 부처와 이별하는 물건이라 불렀다.

춘성의 눈에도 달이 보였을 것이다. 어땠을까, 선승의 눈에 비친 첩첩산중의 달은? 달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달이 거기에 존재하겠느냐고 아인슈타인은 반문했다. 내가 달을 보므로 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대승기신론'이 말하는,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三界虛僞 唯心所作)'와 비슷하다. 그러나 마음처럼 복잡미묘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 선승이 깊은 산중에 몸을 두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라기보다, 마음이라는 무서운 세상을 피해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려 애쓰는 선승 위로 달이 뜨고 진다. 춘성이 보았을 세속의 달을 망월사를 지은 신라의 스님 해호(海浩)가 보았고, 신라의 마지막 태자가 보았고, 부도탑을 남긴 혜거(慧炬)가 보았으리라.

두꺼비 바위란 곳을 지나서 올려다보자 망월사는 그 옛날 월성(月城)이라고도 부른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바라보는 자세로 산 중턱에 걸터앉아 있다. 달리 보면 고개를 약간 쳐들고 달을 바라보는 자세이기도 하다. 1957년 사학자 이종각은 경주를 망경(望京)한다는 뜻에서 망월사가 생겼다고 경향신문에 썼다. 탈속한 선승의 거처이거나 기껏해야 운수납자(雲水納子)들이 쉬어가는 절로 어울림직한데도 어딘지 속세를 그리워하는 우수 어린 느낌으로 망월사가 내 눈에 비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자, 머리 위로 어지러이 나뭇잎과 눈가루가 흩날린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걸음을 멈추고 서 있어야 했다. 망월사를 선명하게 가리키는 마지막 푯말과, 방향도 계통도 없이 불어 닥친 초겨울 바람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한 채 길을 잃었다. 표지판도 바람도 무상하다. 그러나 나는 저기 저, 아름드리 참나무 뒤로 난 가파른 계단을 밟아 해탈문으로 올라야 한다.

망월사는 여섯 개의 좁은 문으로 바깥에서 안이 연결되거나 안에서 바깥, 안에서 안이 연결되는 절이다. 해탈문, 통천문, 자비문, 여여문, 월조문, 금강문이 그것들인데, 모두 겨우 사람 하나 지나다닐 넓이였다. 해탈문은 고개를 꺾고 지나야 할 만큼 높이도 낮았다. 해탈하려면 하심을 품어야 한단 뜻인가.

망월사에 다녀온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풍경이

가파른 비탈 오르면 하심돼
달 바라보며 해탈 경지 읊다
깨달음의 동선으로 구성된 도봉산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대개는 영산전이 있는 자리가 망월사에서 가장 아름답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뒤로 우뚝 솟은 자운봉·만장봉·선인봉에 눈길이 오래 머무른다. 나로 말하자면 자비문을 통해 만난 무위당이다. 무위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지장전이다. 무위당을 기억의 1순위로 꼽는 건 예사롭지 않은 벽화 때문이다. 1994년 화백 이연욱은 마치 어린이가 쓱쓱 낙서하듯 벽화를 그렸다. 이연욱의 벽화에서라면 부처의 대열반도 윤회를 끊지 못한 미완성의 모습이다. 완전한 깨달음이란 없다는 뜻일까? 무위당 편액 바로 아래 망월사 편액이 걸렸는데, 거기에 쓰인 광서신묘중추지월 주한사자원세개(光緖辛卯中秋之月 駐韓使者袁世凱), 중국의 초대 대통령 위안스카이가 1891년에 다녀간 흔적도 이연욱의 거침없는 무위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할 뿐이었다.

금강문을 빠져나와 포대능선을 향해 걸었다. 망월사를 다녀간 정대 스님은 문을 소재로 임종게를 남겼다.

올 때도 죽음의 문에 들어오지 않았고
갈 때도 죽음의 문을 벗어나지 않았네
천지는 꿈꾸는 집일지니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아라

망월사를 뒤에 두고 포대능선으로 올라 도봉산의 주봉인 자운봉을 한번 바라보고는 그 반대쪽으로 걸었다. 사패산 쪽으로 향하는 능선이다.

사패산은 수락산과 도봉산을 잇는 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광폭터널이라는 사패산터널을 한때 승단에서 반대하여 이름이 더 알려진 산이다. 사패산 계곡 한켠에 오롯이 자리 잡은 비구니 사찰 회룡사(回龍寺)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나는 지금 그 회룡사를 거쳐서 하산하려는 것이다.

원도봉산의 숨은 진경을 보러 일부러 절벽이 많은 안말능선으로 내려갔다. 안말능선이 감춘 계곡에서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온다. 숨은폭포는 북한산 숨은벽처럼 잘 보이지 않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조선의 재상 채재공은 일찍이 이 계곡을 발견하고는 회룡사관폭기(回龍寺觀瀑記)란 글을 남겼다. '지금은 물이 바위에 속아서 그 기세가 크게 다투어가는 듯하고, 그 모습이 크게 미친 듯하다' 바위를 만나 더듬거리던 물줄기가 출구를 찾아내자 다투어 다발로 묶인 듯 흘러간다고 채제공이 묘사한 폭포를 보며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물길이 낮아질수록 물소리가 작아지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물길이 땅을 파헤치고 모조리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린 모양이었다. 회룡사가 보인 건 바로 그때였다. 텃밭을 거느린 약사전을 먼저 만났다. 등산객으로 북적댔던 산 위에서와 달리 휴일의 절집은 이상하게 잠잠했다. 그 알 수 없는 적요 때문인지 햇빛이 쨍쨍한데도 텃밭 고랑들이 어두워 보였다.

우리나라 절은 그 절반 이상을 원효와 의상, 도선이 지었다. 절을 소개하는 안내문 만을 읽으면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그 많은 절을 세 스님이 창건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회룡사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적혀 있지만 그걸 입증할 문헌이나 비문은 보이지 않는다. 동진, 혜거 같은 고승이 절을 중창했다는 이야기도 다만 이야기에 그칠 뿐이다. 고승의 이름을 언급할수록 권위가 서리란 생각이 출처불문의 이야기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선 건국에 관여한 무학이 회룡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짐작된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중동국여지승람' 권11의 양주목 불우조(佛宇條)에 망월사·영국사와 함께 도봉산에 있는 절로 회룡사를 소개했다. 무학이 망월사에 거처했을 근거가, 무학의 오랜 동지인 이성계가 회룡사에 왕래했을 개연성과 함께 충분하다. 이방원을 미워하여 멀리 함흥으로 떠났던 이성계가 도성인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들렀을 수도 있다. 적어도 절 이름이 회룡사니 말이다.

회룡사가 꼽는 성보 가운데 으뜸은 돌확이라고도 부르는 석조(石槽)이다. 서산 보원사지 석조에 버금가는 대형 물그릇으로 물론 돌로 만든 것이다. 절에 가면 저마다 다른 이름을 현판으로 내건 전각들이 보인다. 대웅전이나 관음전처럼 불보살을 모신 전각에는 전(殿)자를 붙인다. 산신각이나 칠성당처럼 불보살과는 다른 신격체를 모신 건물에는 각(閣)이나 당(堂) 자를 붙인다. 옛 스님들은 우물이나 약수에도 전각을 지어 수각이라 불렀다. 물 또한 불성이 깃들었으므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스님들의 자연관이다.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세 도시가 경계를 이루는 도봉산은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등산객들은 너나없이 이 봉우리와 저 봉우리를 넘나든다. 그러나 불법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망월사와 회룡사를 축으로 한나절에 부처께 다가가는, 깨달음의 동선(動線)을 그려볼 수도 있다. 들머리와 날머리가 한 구간의 도시철도로 연결된 이 산길을 불자들에게 기꺼이 추천한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굴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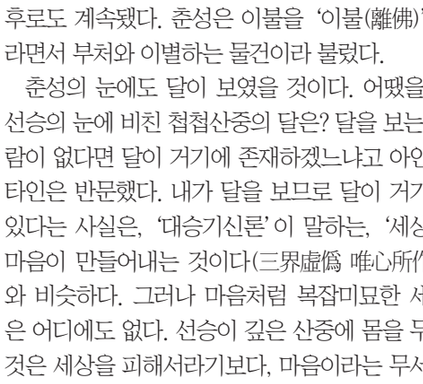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알아차림은 다짐에 달려있다

알아차림은 다짐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다짐이 약하면 알아차림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알아차림을 결심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⑪ 종교, 꼭 필요한 것일까?

바른 길 인도하는 가르침을 찾아라

오늘 젊은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먼 미래의 극락왕생보다는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삶이 너무 절박하고 막막해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종교를 찾게 된다. 평소에는 다른 것들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최후의 순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던 사람들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진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삶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때 찾게 되는 것 또한 종교이다.

극한 순간이 되면 우리들 내면의 본능이 눈을 뜨는 것 같다.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울며 엄마를 찾듯이 말이다. 이것을 종교성(宗教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교성을 가진 우리들을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적세계에 대해서 찾게 된다. 궁극적으로 찾게 되는 최고의 가르침(教)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다. 가장 꼭대기라는 의미의 '마루 종(宗)' 자를 써서 종교(宗教)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내가 힘들고 절박하게 찾게 되는 절대적 존재를 '부처님' 또는 '보살님'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보살님들은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들이 갖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 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심(信心)이 생긴다. 이 신심은 우리가 종교적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현수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 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다."

그리고 〈숫타니파타〉에서도 "세상에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요,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 라고 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신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러한 신심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사실상 오늘날 절과 교회와 성당을 찾는 신도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신심의 부재와 결여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 보다 더 큰 신심을 주는 것들이 많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놀거리의 홍수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며 재테크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종교는 이제 젊은 세대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신심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교에서는 무엇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어린 시절 농경축제가 열리고 있을 때, 나무 아래 앉아서 잠시 고요한 선정에 드신 적이 있다. 그때 느낀 선정 체험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 맛본 '행복의 체험'이었다.

종교에 관심없는 요즘 젊은이들
신심 부재 · 결여가 가장 큰 원인
'선정 체험' 통한 신심 증장 필요
내 삶을 행복 · 긍정으로 채우려면
꾸준한 수행 통해 선정 들어보길

법회의 식순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입정(入定)'이다. 법사(法師)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경건히 하며 바른 가르침을 듣기 위한 준비이다. 찬불가도 중요하고, 반야심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정의 순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요가 수행과 고행 끝에 찾지 못한 깨달음의 정수를 선정(禪定)을 통해서 찾게 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여도 내가 선정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선정에 들어간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찬불가를 부를 때든 염불을 할 때든 법문을 들을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든 모든 때와 장소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신심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선정 체험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지 말라고 말려도 늘 절을 찾게 될 것이다. 절 만큼 고요하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반과 스님들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선정에 드는 방법이 반드시 호흡 관찰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수행도 있고 염불과 간경, 참선 등 많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수행하면 선정에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신심이 나의 삶과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교를 믿어야하는지 잘 모를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에 삿된 도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았다.

첫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 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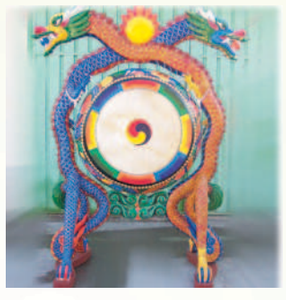
둘째,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셋째,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고 정리해 주셨다. 꼭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종교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야 하고 바꿀 수 없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 내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권리이자 수승한 가치이다. 전지전능한 절대자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은 나 자신을 종과 노예로 전락시킨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야 행복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은 무책임과 무분별한 마음을 확산시킨다. 나의 행동과 생각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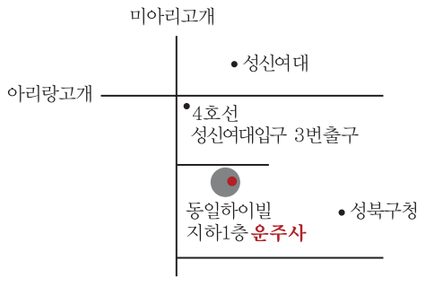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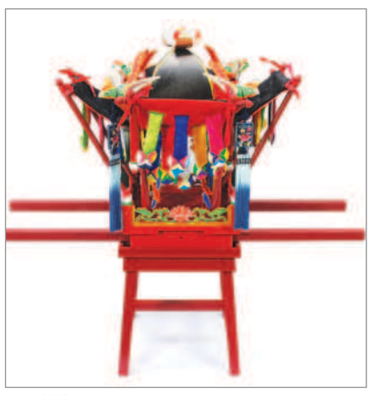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금 액 : 450만원
■ 제조사 : 안스아트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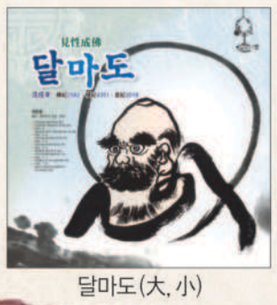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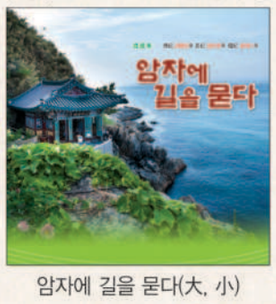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